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아동학석사 학위논문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의 비교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s
and Juvenile Delinquency
: A Comparison of Real-life and Cyber
Delinquency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반한별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의 비교

지도교수 박혜원

이 논문을 아동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반한별

반한별의 아동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영 주 ㉠

심 사 위 원 정 민 자 ㉠

심 사 위 원 박 혜 원 ㉠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22년 8월

국 문 초 록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의 비교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반 한 별

본 연구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현실 비행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그리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현실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비행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2-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현실 비행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2-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이버 비행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2-3.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을 매개로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를 통해 조사된 중학교 3학년 자료 중 무응답을 제외한 2,384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Pearson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AMOS 23.0을 이용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으로 가는 경로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개별 매개경로 및 이중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펜텀변수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모형의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현실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사이버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현실 비행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은 유의한 개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공격성도 유의한 개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이버 비행의 관계에서도 사회적 위축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공격성도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나아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현실 비행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이버 비행의 관계에서도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이중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현실 비행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현실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즉 남학생 집단의 경우 여학생 집단보다 공격성이 현실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을 매개로 현실 비행뿐 아니라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부모 및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심리적·교육적 개입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5
2.1 연구문제	5
2.2 연구모형	5
II. 이론적 배경	6
1. 부모의 양육태도	6
1.1 부모 양육태도의 개념	6
1.2 부모 양육태도의 유형	6
1.3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위축	9
1.4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	10
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현실 비행/사이버 비행	11
2. 사회적 위축	13
2.1 사회적 위축의 개념	13
2.2 사회적 위축의 유형	14
2.3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	14
2.4 사회적 위축과 현실 비행/사이버 비행	15
3. 공격성	15
3.1 공격성의 개념	15
3.2 공격성의 유형	16
3.3 공격성과 현실 비행/사이버 비행	17
4. 현실 비행	18
4.1 현실 비행의 개념	18
4.2 현실 비행의 유형	19
5. 사이버 비행	20
5.1 사이버 비행의 개념	20
5.2 사이버 비행의 유형	21
III. 연구방법	24
1. 연구대상	24
2. 연구도구	25

2.1 부모의 양육태도	25
2.2 사회적 위축	25
2.3 공격성	26
2.4 현실 비행	26
2.5 사이버 비행	26
3. 연구방법	27
IV. 연구결과	28
1.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28
1.1 기술 통계	28
1.2 차이 검정	29
1.3 상관 분석	30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31
2.1 측정 모형 분석	31
2.2 구조 모형 분석	35
2.3 매개 효과 분석	37
2.4 다중 집단 분석	41
V. 결론	45
1. 논의	45
2. 연구의 시사점	47
2. 연구의 한계점	48
참고문헌	50
부 록	65
Abstract	71

표 목 차

<표 1> 연구자별 양육태도의 구성요인	9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4
<표 3> 부모 양육태도의 문항구성	25
<표 4>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28
<표 5> 주요 변인의 남녀집단 간 평균 차이검정	29
<표 6>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30
<표 7> 문항 꾸러미의 문항구성	31
<표 8> 현실 비행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32
<표 9>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33
<표 10> 측정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33
<표 11> 현실 비행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36
<표 12>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36
<표 13> 현실 비행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38
<표 14>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38
<표 15> 현실 비행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정	40
<표 16>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정	40
<표 17> 현실 비행 연구모형의 측정동일성 검정	42
<표 18>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의 측정동일성 검정	42
<표 19> 현실 비행 연구모형의 다중집단분석	43
<표 20>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의 다중집단분석	44

그림 목 차

[그림 1] 현실 비행 연구모형	5
[그림 2]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	5
[그림 3] 현실 비행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34
[그림 4]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34
[그림 5] 현실 비행 연구모형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37
[그림 6]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3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의식이 강해지는 청소년기는 어른으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시기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간이 감소하고 친구와의 유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또래들과 많은 시간을 공유한다(장휘숙, 1997; Alsaker, 1996).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동기의 자녀뿐 아니라 또래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추구하는 청소년기의 자녀에게도 매우 강력하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향하는 발달의 과도기적 단계로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이며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우울, 불안, 충동과 같은 심리적 동요를 경험하는 불안정한 시기이다(이춘재, 곽금주, 1994). 또한 이 시기의 청소년은 이러한 혼란과 방향을 겪는 과정에서 비행 같은 갈등과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제미순, 최원희, 2008).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취하는 양육태도에 따라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는 정서·행동적 문제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내는 일반적인 태도이자 부모의 반응양식을 의미한다(Becker, 1964; Gonzalez & Wolters, 2006).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 정서, 성격, 신체,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용택, 2011; Becker, 196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일관, 수용, 민주, 애정, 관심 등의 긍정적인 특징을 나타낼 때, 자녀들은 우울(기유나, 2014), 사회적 위축(김혜선, 이지민, 2016)과 같은 내재적 문제와 공격성(임혜림 외, 2014)과 같은 외현적 문제를 비교적 낮게 경험하고 문제 행동을 억제하기도 한다(최유진, 2019). 반면에 부모가 거부, 방임, 비밀관성, 통제, 과잉간섭 등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경우, 청소년 자녀의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며 내재적·외현적 문제와 사회적 부적응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김혜영, 2000; 박기숙, 2018).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들은 청소년 자녀의 비행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청소년 비행은 무단결석, 가출, 음주, 흡연 등과 같이 청소년 신분엔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행위와 따돌림, 폭행, 사기, 절도, 성폭행 및 성희롱과 같이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일컬어지며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그 빈도는 큰 폭으로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저연령화되고 수법은 잔혹해지는 추세이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퇴학·전학·학급교체·

출석정지 등의 중징계 비율은 2016년에 26.4%에서 2020년 37.1%로 크게 증가했다(강득구 의원실 보도자료, 2021.10.01.). 나아가 2015년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부터 행해진 강도 방화, 살인, 성폭력과 같은 강력 범죄의 비율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대검찰청, 2022). 마찬가지로 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7천407명으로 기록된 촉법소년 처리 건수가 2019년은 9천376명, 2020년은 1만 112명, 2021년은 1만 2천029건으로 급증하며 저연령의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법원통계월보, 2022).

한편 최근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와 모바일 인터넷 사용량의 급증에 따라 청소년 비행의 형태도 변화하여 사이버 비행이 주목받고 있다. 청소년이 컴퓨터와 같은 전자 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행하는 사이버 비행은 지위 비행(나이 속임 등), 성비행(음란물 유포, 스토킹 등), 폭력 비행(폭언, 협박 등), 재산 비행(도용, 사기 등) 등의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김진, 2020; 이정숙, 안윤영, 2005). 10대의 99.7%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할 만큼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현대사회에서 사이버 공간 속 비행 경험 가능성은 함께 높아지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실제로 학교 폭력 실태조사(교육부, 2021)에 의하면 중학생 집단에서 행해지는 비행 중 언어폭력에 이어 사이버 폭력의 피해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에 따르면 청소년의 5.8%가 사이버 폭력 가해를 경험하였고 29.2%가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는데 이는 성인의 사이버 폭력 가해·피해율 보다 약 2배 높은 수치이다.

청소년기의 비행 가해 및 피해 경험은 청소년의 삶에 장·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비행 가해 경험은 청소년의 학교적응, 학업, 진로, 사회적 관계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의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겪거나 성인 범죄로 발전될 수 있다(김나영, 황혜영, 2018; 최영신, 2000; Copeland et al., 2013; Sigurdson et al., 2015). 한편 비행 경험은 피해 청소년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피해 청소년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더불어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며 심지어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다(김영미, 2016; 김재엽, 이근영, 2010; 김정남, 남영옥, 2013; 신성웅 외, 2000; Copeland et al., 2013; Sigurdson et al., 2015).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행 행위는 익명성, 집단성, 탈시공간성, 광역성, 영구성, 전파성 등의 특성들로 인해 가해 행동의 통제를 어렵게 하며 피해자에게는 지속적이고 치명적인 고통을 입힌다(이승현 외, 2015; 정한호, 2012). 나아가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에서는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우울, 불안, 스트레스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에서 복수심은 사이버 폭력의 주된 가해 동기 중 하나로 조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은 가해자로의 전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공격 욕구를 자극하여 사이버상의 가해 행위로 연결되며 이를 통해 보복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다(박예슬, 박주희, 2016; 이진주, 2020). 요약하면 학교 폭력의 피해 경험은 또 다른 피해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Agnew(1992)의 일반긴장 이론에 근거하여 긴장을 유발하는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을 통해 분노,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자극과 감정을 제거 혹은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행의 가해자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의 비행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이들이 속한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과 경로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비행에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가출, 신체 및 언어폭력, 음란물 접촉, 금품 갈취, 음주, 흡연, 약물 남용 등과 같은 현실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 정윤경, 2007; 김현수, 김현실, 2004; 박정선, 황성현, 2010; 양계희, 2011; 오운선, 2012; 이세경, 김영혜, 2011; 이해은, 최정아, 2008; 한상철, 2008; 한승욱, 2011; 황규숙, 1999; Gómez-Ortiz et al., 2016; Rey & Plapp, 1990). 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감옥,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성폭력, 사진·영상·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사이버 비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호, 2014; 남상인, 권남희, 2013; 이현, 2017; 임숙희 외, 2018; 전숙영 외, 2005; 조강원, 임영식, 2020; Katz et al., 2019; Moreno - Ruiz et al., 2019). 반면에 연구자들은 만약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양육할 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이는 청소년 자녀가 문제 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을 낮추고 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성인기의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김용석, 박명숙, 2000; 박기숙, 2018).

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라는 하나의 변인으로 청소년의 비행을 전부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비행과 연관된 청소년의 다양한 개인적 요인들을 함께 연구하였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와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의 관계에서 주로 다루어진 변인은 자녀의 공격성이다(김현진, 김민, 2016; 박은주, 최말옥, 2014; 유연주, 2021; 최영, 김현수, 2018; 하문선 외, 2021). 무관심, 거부, 과도한 통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 행동을 경험하면서 자란 자녀는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고 자녀의 공격적인 특성이 높을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사이버 비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고 피해자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심적 부담 없이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이정환, 2014). 이러한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대면적 상호작용 없이도 쉽게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비행 행동을 저지를 기회를 마련한다(홍지연 외, 2021). 실제로 사회적 불안,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은 직접 대면는 사회적 관계보다 스마트폰을 통한 관계를 더 선호하며 이는 스마트폰 중독에 원인이

로 작용하기도 한다(Enez Darcin et al., 2016).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적 위축이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는데(서봉언, 2017; 이석영 외, 2015; 황성현, 이강훈, 2017), 이는 사회적 위축이라는 내재적 문제가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문제에 기여한다는 연구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친구 관계 형성과 사회적 기술 습득을 방해하고 이는 사회적 불안을 강화하여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행동 문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다(김민서 외, 2018; 정일영, 2019).

본 연구는 부모 요인인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개인 요인인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이 현실 비행으로 가는 경로뿐 아니라 사이버 비행으로 가는 경로를 함께 분석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비행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정서 및 행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지 개인과 가정의 문제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국가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사회적 위축, 공격성,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예방 및 대처 전략 수립과 정서·행동문제의 완화 방안 마련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을 둔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2.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1-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현실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1-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비행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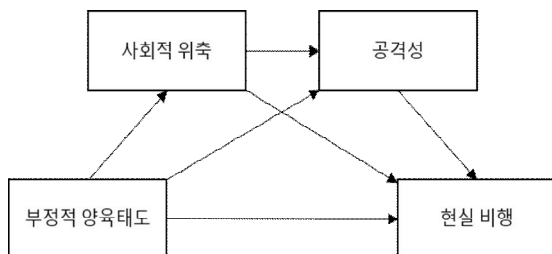
2-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현실 비행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2-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이버 비행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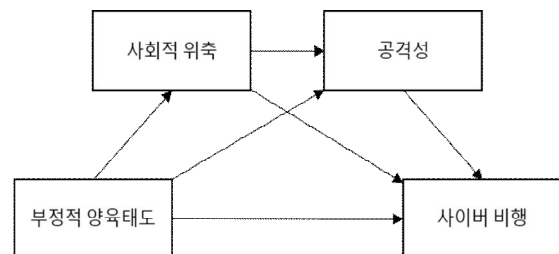
2-3.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을 매개로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2 연구모형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실 비행을 종속 변인으로 한 연구모형과 사이버 비행을 종속 변인으로 한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현실 비행 연구모형



[그림 2]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

Ⅱ.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양육태도

1.1 부모 양육태도의 개념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사회적 역할, 가치, 태도 등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이정옥, 2004).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자마다 조금씩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지만 주로 부모 혹은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태도 및 행동이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반응양식으로 정의되고 있다(Becker, 1964; Gonzalez & Wolters, 2006). 김신정과 김영희(2007)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속한 문화 양식 내에서 나타나는 내현적이고 외현적인 태도 경향성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나타내는 보편적인 행동양식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차지량(2007)은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양육에 대한 가치 체계를 자기 자녀들에게 내·외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의 성격, 정서, 인지 등 성장과 발달에 있어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하였다. 김경수와 김화경(2011)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행동발달의 기초가 되고 자녀의 성격형성과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1.2 부모 양육태도의 유형

정신분석학과 행동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자녀의 초기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부모의 행동이 아동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고, 자연스럽게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해졌다(Darling & Steinberg, 1993). Symonds(1949)은 최초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했는데 이를 지배-복종(Dominance-Submission), 수용-거부(Acceptance-Rejection)의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배적인 경우의 자녀는 자발성이 낮아지며 소극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복종하는 경우는 자녀가 사회의 규칙에 반발하고 무책임하며 공격성을 띄기 쉽다. 혹은 부모가 자녀에게 거부적이라면 자녀는 냉담하고 쉽게 불안해지며 반사회적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이수연, 1998). 단 Symonds의 이론이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설명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를 정상적인 기준에 의해 설명하진 못하였다(이원영, 1984). 반면에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범주의 부모 양육태도를 대상으로 연구

한 결과, 애정-적대(Love-Hostility)와 자율-통제(Autonomy-Control)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애정-자율, 애정-통제, 거부-자율, 거부-통제로 구분되는 네 가지 유형의 양육태도를 제시했다. 애정-자율의 축에서 애정의 측면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수용, 애정적인 태도를 뜻하며, 거부는 자녀에 대한 냉담한 태도, 예민한 반응, 처벌 등을 의미한다. 자율-통제의 축에서 자율적인 측면은 자녀에게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자녀의 선택과 의사를 존중하는 반면, 통제는 자녀에게 강압적인 요구, 과보호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 축을 기반으로 분류되는 네 가지 양육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신정, 김영희, 2007; Martin, 1975). 첫째, 애정-자율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의견과 행동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민주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애정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둘째, 애정-통제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은 보이지만, 과보호적이고 자녀의 행동에 간섭하며 강요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자녀를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녀가 독립적으로 환경을 탐색해나갈 기회를 축소한다. 셋째, 거부-자율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함을 보이는 방임적 태도이며 자녀에게 적절한 가르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을 경험하며 자란 자녀는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공격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박정은, 2002). 넷째, 거부-통제적 태도는 부모는 애정을 표현하지 않고 독재적,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한다. 또한 자녀에게 체벌로써 복종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경우의 자녀는 온전한 자아 정체감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내면화된 갈등과 분노에 고통을 받으며 자기 학대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박정은, 2002). Schaefer(1959)는 네 가지 유형 중 애정-자율 영역에 해당하는 양육태도를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양육환경을 경험한 자녀들은 긍정적, 능동적이고 사회적 상황에서 사교적이고 외향적이라 하였다.

Baumrind(1966)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허용적(Permissive) 유형, 권위주의적(Authoritative) 유형, 권위적(Authoritarian)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허용적 유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적이지만 과도하게 낮은 통제와 비일관적인 훈육 태도를 보인다.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하며 자란 자녀는 낮은 독립심을 보이며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다. 둘째, 권위주의적 유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낮은 애정과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는 쉽게 적대적이고 냉담하며 자존감이 낮은 경향이 있다. 셋째, 권위적 유형은 자녀에게 애정과 동시에 적절한 한계를 제공하며 합리적인 기준과 함께 훈육한다. 또한 자녀의 의견에 수용적이고 민주적이다.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하며 자란 자녀는 사회적 상황에서 사교적이고 긍정적이며 성취 지향적이다. Maccoby와 Martin (1983)은 Baumrind의 세 가지 유형에서 방임적(Uninvolved) 양육태도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의 욕구에 무관심하고 반응하지 않으며 자녀와 접촉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방임적인 부모의 자녀들은 공격성이 높고 성취 목표가 없으며 비행에 가담하는 경향이 있다(문민정,

2008).

두 개의 차원을 기반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한 이론들과는 달리 Skinner 외 (2005)는 따스함(Warmth), 거부(Rejection), 구조제공(Structure), 혼란/비일관성 (Chaos), 자율성지지(Autonomy support), 강요(Coercion)로 구성된 6 요인의 양육 차원을 제시했다. 첫째, 따스함은 자녀에 대한 애정, 돌봄, 수용, 기쁨 등의 표현과 부모의 정서적 가용성을 의미한다. 둘째, 거부는 부모가 아이를 선호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짜증, 비판, 조소 등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며 자녀의 행동에 거부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구조제공은 자녀의 적절한 행동을 유도하는 부모의 일관적이고 명확한 지도의 제공이며 넷째, 혼란/비일관성은 일관적이지 않고 불규칙하며 예측할 수 없는 양육 행동을 의미한다. 다섯째,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선택, 표현, 의견 등을 허용하고 존중하며 지지하는 것이며 여섯째, 강요는 제한적이고 과도한 통제로 강압적인 양육 행동으로 자율성 지지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이운영과 차재호(1974)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온정-냉정, 과보호-방임, 허용제약, 그리고 안달-태평의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박성연, 이숙(1990)은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로 7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허묘연 (1999)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합리적 설명, 감독, 애정, 비일관성, 과잉 기대, 과잉 간섭, 학대, 방치로 구분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 설명은 자녀를 지도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적이고 애정이 어린 방식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감독은 부모가 자녀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아는 정도를 의미한다. 셋째, 애정은 자녀에게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이고 자녀를 수용 및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넷째, 비일관성은 자녀를 훈육할 때 일관적이지 못한 기준을 적용하며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과잉 기대는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 수준을 가지면서 성공을 강조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여섯째, 과잉 간섭은 자녀의 생활에 불안해하며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로 성인의 기준을 강요한다. 일곱째, 학대는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 손상을 유발하는 양육자의 행위이다. 여덟째, 방치는 자녀에게 전반적으로 무관심하고 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연구자별 양육태도의 구성요인

	연구자	양육태도의 구성요인
국외 연구	Symonds (1949)	수용-거부 지배-복종
	Baldwin (1955)	민주, 전제, 익애, 거부
	Schaefer(1959)	애정-적대, 자율-통제
	Elder (1962)	전제형, 권위주의형, 민주형, 평등형, 무시형
	Becker (1964)	온정-적대, 제한-허용, 과보호-방임
	Baumrind (1966)	민주적, 권위적, 허용적
	Maccoby, Martin (1983)	권위, 독재, 허용, 방임
국내 연구	정원식 (1975)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
	한중혜 (1980)	애정과 수용-적대와 거부, 민주와 자율-권위와 통제
	오성심, 이종승(1982)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김기정 (1984)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 압력
	박성연, 이숙 (1990)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 참여, 일관적 규제
	허묘연(1999)	합리적 설명,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 기대, 과잉 간섭, 학대, 방치

1.3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적 위축

부모는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면서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애정과 감독이 결핍된 방임적 양육태도를 취하는 경우, 청소년 자녀의 자신감은 감소하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위축된다(박영숙, 임안나, 2018). 반면에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자녀는 사회적 상황에서 덜 위축된다(김혜선, 이지민, 2016).

사회적 위축은 주로 과보호, 강압, 권위주의적 태도와 같은 양육태도에 의해 유발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elson et al., 2006; Rubin, Coplan, & Bowker, 2009). 자녀의 활동에 지나치게 염려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도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녀의 수줍음과 과묵함을 예측하고(Rubin, Cheah, & Fox, 2001)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도 청소년 자녀의 자아 탄력성과 정서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사회적 위축을 유발한다(최나리, 2022). 나아가 비합리적, 거부적, 강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위축을 예측한다고 하였다(Sandhu & Sharma, 2015). 김용주(2018)는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양육태도를 취할수록 자녀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와 왜곡된 신념을 가지기 쉽고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된 행동을 보이게 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자녀의 경우도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으며(김춘경, 조민규, 2014; 조운영, 2020) 학대뿐 아니라 방임이나 낮은 감독 수준을 경험한 청소년은 또래 관계의 질이 낮고 외로움을 크게 경험하기도 한다(김주연 외, 2012).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에서 가정 환경 요인은 자주 함께 다뤄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의 공격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으로 인식할수록, 또한 애정이 결핍될수록 자녀는 더욱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김귀연, 김경연, 2005; 김제엽, 정윤경, 2007; Olweus, 1994). 한동현(2012)은 부모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이며 무관심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 분화의 발달을 손상하면서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장지순(1999)은 부모의 거부, 과잉보호, 체벌, 위협, 강압 등이 자녀의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가정 내에서 사회화 과정의 좌절을 유도한다면 자녀의 공격행동의 동기화 강도는 커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적대적인 부모의 아래에서 양육된 자녀는 타인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왜곡된 채 인식하여 적대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을 시사한다(곽혜경, 2008; 장지순, 1999).

오채미, 공인숙(200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주도적 공격성, 반응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며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강요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폭력적인 대화나 폭력 등의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자녀의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통해 가족 폭력은 세대 간에 전이되어 악순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노치영, 1992).

Olweus(1980, 1994)는 다음 네 가지 요인으로 인해 양육환경이 공격성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정은, 2002). 첫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본적 정서 태도가 중

요하며 애정이나 관심이 결핍된 경우 자녀는 타인에게 공격적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부모가 자녀의 공격성에 얼마나 허용적인가도 중요하다. 즉 부모가 자녀의 공격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한계와 지침을 제공하지 않으면 자녀의 공격성은 적절히 조절되지 못하고 증가한다. 셋째, 부모가 신체적 처벌 등 권력형 양육 방법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부모의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경우 자녀의 공격행동은 유발된다. 넷째, 자녀의 타고난 기질도 중요하다. 급한 성미의 기질이나 활동적 기질의 아동은 공격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박정은(2002)은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연구를 통해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적대적이고 통제적으로 지각할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며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경우 공격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1.5 부모의 양육태도와 현실 비행/사이버 비행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비행을 다루는 선행연구에서는 Agnew(1992)에 의해 제시된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 기반하여 자주 논의된다.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모와의 갈등,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교적응 문제, 폭력 피해 등으로 인해 긴장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분노, 공격성,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긴장 요소와 부정적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처 방법으로 청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른다(이성식, 2007). 따라서 방임, 거부, 학대, 통제 등 부정적 양육태도와 같은 가정 내 긴장은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비행 행동을 하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비교하는 선행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강압적 통제, 애정 결여, 비밀관성, 비합리성 등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유자, 2000; 김현수, 김현실, 1997; 옥정 외, 2001; 이세경, 김영혜, 2011). 이세경, 김영혜(2011)는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부정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옥정 외(2001)가 비행집단, 비행과 유사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위험집단, 그리고 정상집단의 청소년을 비교한 바에 따르면 비행집단과 위험집단의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낮은 애정과 비합리성을 경험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거부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김재엽, 정윤경, 2007; 황규숙, 1999)와 방임적인 부모의 양육태도(홍태경, 류준혁, 2011)도 자녀의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방임적이고 무관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폭력 사용에 허용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공격성향을 높인다(이복실, 2007). 또한 부모의 불충분한 양육 기술, 자녀에 대한 모니터링 부족, 통제 결여는 청소년 자녀의 약물 오남용, 비행 행동, 공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수, 김현실, 2004). 처벌적 훈육을 주로 사용

하는 비민주적인 양육태도도 청소년의 비행 참여를 유발한다(Gómez-Ortiz et al., 2016). Rey와 Plapp(1990)은 품행 장애 및 반항 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보호 적이고 돌봄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김용석과 박명숙(2000)은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비행과 음주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이며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모의 언어적·신체적·심리적 학대는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현실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은희, 2001; 김재엽 외, 2008; 유진이, 탁분희, 2007; 진혜민, 배성우, 2012; 홍태경, 류준혁, 2011). 조유정 외(2005)도 일반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비행 청소년의 경우 일반청소년보다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경험했을 뿐 아니라 비행 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공격성이 유발되어 가해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이승주, 정병수, 2015). Patterson 등(1989)은 부모의 비효율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품행문제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는 자녀의 학교 부적응과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면서 비행 집단과 어울리기 쉽고 이는 청소년기의 만성적 비행으로 연결된다고 하였다(곽금주, 문은영, 1993).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현실 비행뿐 아니라 사이버 비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좌현숙(2015)은 부모의 학대가 중학생 자녀의 우울을 높이고 우울은 다시 자녀의 사이버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상의 긴장이 형성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다는 일반긴장이론과 그 맥락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화옥, 이민화(2018)도 가정에서 학대, 방임, 폭력 등 부적절한 양육 환경을 경험하고 부모-자녀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높은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이는 사이버상에서의 위협 행동 가능성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과보호적 양육태도(김한울, 2016), 거부적 양육태도(김형진, 2017)와 더불어 간섭적이고, 비일관적이며, 방임적인 양육태도의 경우에도 청소년 자녀의 사이버 비행 행동은 증가한다(윤정화, 김성희, 2020). 이지혜와 강민주(2019)는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사이버 비행의 가해 행동 및 피해 행동에 영향을 주고 사이버 비행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그 분노와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사이버 비행 행동을 저지른다고 하였다.

부정적인 부모 양육태도는 사이버 비행 가해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혹은 공격성과 같은 개인의 내적 요인을 통해 사이버 비행 가해 경험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기도 한다(반지윤, 오인수, 2020; 이지연, 박동필, 2015; 정두리, 조한익, 2021). 예를 들어 이지연과 박동필(2015)은 청소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과잉보호를 많이 받은 것으로 지각할수록 특성분노와 공격성이 높았으며 이는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사회적 위축

2.1 사회적 위축의 개념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이란 새로운 환경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높은 긴장, 초조, 경직, 불안 등의 정서 상태와 함께 움츠러들고, 대인관계의 원만한 유지·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며,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 참여하지 못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 경향성을 의미한다(Rubin, Coplan, & Bowker, 2009; Watson & Nesdale, 2012).

연구자들은 사회적 위축의 개념을 억제(Inhibition) 및 수줍음(Shyness)과 혼용하여 사용하는데 Rubin, Asendorpf(1993)는 각 용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억제는 낯선 상황에 닥쳤을 때 공포심과 경계 반응을 나타내는 성향이다. 즉 익숙하지 않거나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불안, 고통 혹은 혼란과 같은 생물학적인 반응 및 행동 패턴을 나타낸다. 둘째, 수줍음은 낯선 사회적 상황이나 비사회적인 상황에서의 수줍은 행동과 경계심을 지속해서 나타내며 지나치게 억제된 행동 반응으로 설명된다. 셋째, 사회적 위축은 익숙한 혹은 낯선 또래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일관적으로 혼자서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또래로부터 거부되어 타의적으로 혼자 있기보다는 스스로 집단으로부터 고립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사회적 위축은 가족이나 또래 관계, 학업적 부담 등으로 인해 유발되고 주눅이 들고 기를 펴지 못하는 상태로 설명되기도 하며(김금순, 김은미, 2015) 낯선 환경이나 사회적 평가의 상황에서 두려움과 경계심을 경험하는 기질로 정의되기도 한다(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즉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고립감을 느낀다(김민서 외, 2018; 정익중, 2007).

이와 같은 사회적 위축은 타인과의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정서 행동상의 내재화된 문제를 지닌 상태로 사회성 결핍(Sociality deficiency), 고립감(Isolation), 부끄러움(Shyness), 억제(Inhibition) 등의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권연희, 2013; 윤나리, 2015).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친구들과 적절히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한 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하다고 여기는 외로움 현상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Kurdek & Krile, 1982).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소외의 경험은 다시 사회적으로 위축을 유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외로움이나 부정적 자아 인식, 거부 민감성, 불안 등을 경험하게 될 위험이 있다(Rubin, Bowker, & Gazelle, 2010).

2.2 사회적 위축의 유형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접근 동기와 사회적 회피 동기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Asendorpf, 1991; Coplan et al., 2013). 첫째, 비사회적(Unsociable) 유형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낮은 회피 동기와 낮은 접근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활동에 대한 흥미가 없고 혼자 활동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소외를 선택하는 특성이 있다. 둘째, 수줍은(Shy) 유형은 높은 사회적 접근 동기와 높은 사회적 회피 동기의 특징을 가진다. 즉 사회적 접촉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사회적 불안, 공포 등으로 접촉 욕구가 억제되고 내적 갈등을 경험한다. 셋째, 회피적(Avoidant) 유형은 사회적 접근 동기는 낮고 사회적 회피 동기는 높음으로써 고립을 추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Bayram Özdemir 외(2015)는 절제적 위축(Regulated withdrawal)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먼저 배려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고자 하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집단으로부터 수용 받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나타난다. 즉 절제형 위축 청소년은 타인의 제안, 의견, 요구 등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소망은 과도하게 자제하며 주로 양보하고 수동적인 경향을 보인다.

집단 활동에 참여하였을 때 나타나는 행동에 따라 사회적 위축은 세 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Coplan et al., 1994; Rubin, 1982; Asendorpf, 1991). 첫째, 고독한 소극적(Solitary-passive) 행동의 경우 집단 구성원과는 동떨어진 채 혼자 놀면서 주로 조용히 물체를 탐색, 조작하며 활동한다. 둘째, 고독한 적극적(Solitary-active) 행동의 경우 집단 속에 있지만 다른 또래와는 상호작용 없이 홀로 가상, 상상 활동이나 감각 운동적인 활동을 보이는 것이다. 셋째, 과묵한(Reticent) 행동은 집단 속의 다른 구성원의 활동을 지켜보되 상호작용은 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 접근에 대한 높은 불안과 공포로 인한 회피적 행동이다.

2.3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억제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사회적 기술 습득 기회를 박탈하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로 나타난다(김민서 외, 2018).

선행연구에서는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들의 공격성에 사회적 위축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민서 외, 2018)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이원식, 2018). 이완희와 황성현(2014)의 연구에서도 또래로부터 소외를 경험한 청소년은

반대의 경우보다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아가 김준성(2019)은 사회적 위축은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해 부적절한 사회적 상황을 만들고 대인관계에서 반복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며 이에 따라 높아진 우울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또래로부터 소외, 무시, 따돌림을 경험하기 쉽고 이러한 배척 경험을 통해 적대감,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지속해서 억제되다가 촉발사건 발생 시 폭발적인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을 시사한다(신현경, 이승연, 2016; Cunningham, 2007; Twenge et al., 2001; Walkup & Rubin, 2013).

2.4 사회적 위축과 현실 비행/사이버 비행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은 비행 가해 경험보다 비행 피해 경험과 자주 다루어졌다(이승연 외, 2018; 조예진 외, 2015; Rubin 외, 2009).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성향은 비행 가해자가 집단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거나 유지하는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은지 외, 2021).

반면에 김선남(199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소외감을 경험할수록 비행 성향이 더 쉽게 발생하며 이는 비행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최윤정과 이시연(2006)도 빈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사회적 위축과 같은 심리적 문제는 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은주와 이은숙(2002)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또래 관계에서 소외를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해지며 자살 생각과 비행 행동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한편, 사회적 상황에서 부적응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 공간에서 대인관계의 결핍을 충족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이버 비행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박영신 외, 2011; 심진숙, 2008). 서봉연(2017)은 초등학교 집단과 달리 중학교 집단의 경우 사회적 위축이 사이버 비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중학생의 경우 또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이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가질수록 가상 세계로의 도피 빈도가 늘어가게 되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제 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 공격성

3.1 공격성의 개념

공격성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해

한 자극을 가하는 행위 혹은 사람이나 물건에 상처를 입히고 해를 가하는 행위(Buss, 1961; Feshbach, 1964)로 정의된다. 나아가 공격성은 공격적인 행동이나 피해의 결과 자체보다 신체적 혹은 심리적 해를 가하려는 의도나 동기를 고려하여 정의될 수 있다(Aronson, 1980; Anderson & Bushman, 2002; Berkowitz, 1974; Feshbach, 1971). 즉 목적을 가지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언어적, 신체적 행동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위협적인 태도뿐 아니라 그러한 사고와 정서까지 포함하기도 하는 것이다(곽금주, 1992; 이은아, 2011). 공격성의 의도를 고려한 측면에서 Olweus(1973)도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불편함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는 행위를 공격성으로 정의하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진 감정이나 생각과 같은 내적 반응도 공격성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문선과 김지현(2013)도 공격성을 자신 혹은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기반으로 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가해자는 특정 대상에게 공격적인 행위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정 대상은 공격적 행위를 피하려는 동기가 있어야 한다(Anderson & Bushman, 2002; Baron & Richardson, 1994; Berkowitz, 1993).

심응철(1999)은 공격행위와 폭력행위는 개념상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를 설명하였다. 두 개념은 상대에게 해를 가한다는 것은 유사하지만 공격행동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의 행동에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이지만 폭력 행동은 주로 인간의 비합리적 공격행동을 지칭한다. 즉 그 행동의 동기가 비규범적, 비합법적인 경우는 폭력으로 구분하고 공격행동은 이러한 폭력행위뿐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합법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3.2 공격성의 유형

Allen, Anderson(2017)은 공격성을 구분하기 위한 네 가지 특성을 제시했다. 첫째, 공격성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관측 가능한 행동이어야 한다. 둘째, 행위는 의도적이고 타인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우발적인 피해나 도움을 주려는 행위의 결과물로서의 피해(예: 수술)는 공격성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로 사물에 피해를 가하는 것도 공격성으로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해를 가하고자 하는 대상은 공격 회피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격성은 동기의 차이에 따라 적대적 공격성(Hostile aggression)과 도구적 공격성(Instrumental aggression)으로 구분될 수 있다(Aronson, 1980; Hartup, 1974; Feshbach, 1964). 적대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욕구에 의하여 동기 부여되고 분노나 충동성, 감정적인 행동으로 특징지어진다. 반면에 도구적 공격성은 타인에 대한 상해 이외의 돈, 명예와 같은 목적에 대한 욕구에 의하여 동기 부여된다.

또한 공격성은 방식에 따라서 외현적 혹은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Crick & Grotpeter, 1995). 첫째,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은 타인에게 위협 혹은 해를 끼치기 위한 언어적, 신체적 공격 행동이다. 둘째,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은 소외시키기, 무시, 명예 실추, 루머 퍼트리기 등을 이용하여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Crick & Grotpeter, 1995).

공격성은 기능에 따라 반응적 혹은 주도적 공격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Dodge & Coie, 1987). 첫째,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은 위협적인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적 반응으로써 표출되는 공격성이다. 반응적 공격성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면서 화를 느끼게 되고 보복적인 공격행동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이홍, 김은정, 2012). 둘째,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목표지향적 공격 행동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장지순(1999)이 공격성을 다음의 다섯 유형으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은 타인으로부터 도전이 있을 때 신체적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둘째,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은 타인에게 이유 없이 해를 입히기 위해 내적인 공격 반응을 하는 것이다. 셋째, 폭발형 공격성은 명확한 이유와 정해진 대상없이 순간적이고 폭발적으로 공격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넷째, 언어적 공격성은 말로써 타인을 공격하고 헐뜯는 것이다. 다섯째, 우회적 공격성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공격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외에도 권석만과 서수균(2002)의 공격성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에서는 공격성을 신체적·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으로 공격성의 요인을 구분하였다. 하문선, 김지현(2013)의 연구에서는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그리고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으로 분류한 바 있다.

3.3 공격성과 현실 비행/사이버 비행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청소년의 비행 가해 경험 및 범법 행동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이혜정, 위슬아, 김범준, 2015; 박현선, 김유경, 1997). 청소년기에 공격성의 표출로 인한 비행과 폭력적인 행동은 일부 청소년에게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김현수, 김현실, 200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현수와 김현실(2004)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재원 중인 비행 청소년의 경우 공격 충동과 공격성이 일반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을 밝히면서 공격성은 청소년의 알코올이나 약물남용과도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충동성 및 공격성과 밀접한 상관이 있을 것을 예상한

심용철(1999)의 연구에서는 비행집단인 소년원생의 경우 정상집단보다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적인 행동의 상관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충동성 및 공격성이 높을수록 폭력 행동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공격적인 청소년들은 또래를 괴롭히는 행동을 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조유진(2011)은 공격성이 또래 괴롭힘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수경과 오인수(2012)는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적대적 귀인의 경향성을 설명하면서 공격성이 높을수록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더 저지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외 연구에서도 또래를 괴롭히는 비행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을 더 많이 표출하였다(Craig, 1998).

뿐만 아니라 공격성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적인 행위를 예측한다(Ybarra & Mitchell, 2004). 이아름 외(2014)는 공격성이 사이버 폭력 가해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특성이며 행동적 공격성과 적대감은 사이버 비행 가해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박자양(2005)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사이버 비행 행위는 공격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이버 비행 행위를 더 쉽게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오인수(2014)는 공격성의 3가지 유형인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공격성 모두 사이버 비행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사이버 비행을 저지르는데 공격성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하였다.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교했을 때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혜정, 위슬아, 김범준, 2015). 사회적 관계를 통제하려는 관계적 공격성은 사이버 따돌림, 나쁜 소문내기 등의 사이버 비행 행동의 유형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비행 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소리나, 2016).

정민희와 유서구(2018)는 청소년의 공격성은 지위 비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특히 여자 청소년은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이버 비행에 가담하게 되고 이는 지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 현실비행

4.1 현실비행의 개념

비행(Delinquency)이란 용어는 ‘과오를 범한다’, ‘의무를 태만히 한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한다(김은희, 2001). 더 자세히 알아보면 비행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도덕적 기준에 위배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의미하는 동시에 법규를 위반하는 폭행, 사기, 강도 등의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김태량, 최용민, 2016;

박성희, 1997; 심응철, 1989). 즉 비행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반사회적인 행위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말한다(윤승현, 2015). 형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가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 청소년 범죄라 칭하고,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기에 문제시되는 가출, 음주, 흡연, 성 경험 등의 행위는 좁은 의미의 비행을 의미한다(윤승현, 2015).

청소년의 연령에 대한 규정은 법규마다 다르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만 9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정하는지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또한 민법 제4조에서는 성인을 만 19세 이상부터를 정의하며 미성년자는 만 18세까지로 본다. 반면 소년법 제4조에서는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범법을 한 청소년의 경우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범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범죄소년, 범죄나 비행 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은 이러한 촉법소년 행위, 범죄행위 및 우범 행위를 비롯하여 사회적,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비도덕한 행위, 미성년자로서 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 사회와 집단에 부적응적인 행위 등을 포함한 개념이며 과거와 현재의 행위뿐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행위까지 포함한다(임계령, 2006).

4.2 현실 비행의 유형

청소년의 비행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되었다. 우선 Weiner(1982)는 청소년 비행을 심리적 특성에 따라 성격적 비행, 신경증적 비행, 정신병적 비행 그리고 사회적 비행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성격적 비행은 무책임함, 높은 공격성, 충동성, 양심 및 죄의식 결여 등 반사회적인 성격적 요소가 비행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신경증적 비행은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욕구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잘못된 표현의 수단으로 비행 행위를 저지르는 유형이다. 셋째, 정신병적 비행은 질병이나 뇌의 기질적 손상 혹은 염색체 이상 등의 원인으로 지각, 판단, 행동 조절 능력의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비행 유형이다. 넷째, 사회적 비행은 자신이 속한 하위문화에서 인정되는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면서 그들의 문화와 기준을 충족하려는 행위이다.

김은희(2001)는 비행을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 사회질서 비행, 재산 비행, 성비행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은 패싸움, 폭력, 위협, 협박 등과 같이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수 있는 행위와 음주, 도박, 흡연 등과 같이 청소년 지위에 금지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둘째, 사회질서 비행은 무단결석, 가출, 오토바이 폭주 등 사회규범 상 어긋나는 행위를 의미한다. 셋째, 성비행은 성폭행, 강간, 성희롱 등과 같이 청소년 지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 규범 중 성적인 측면에서 금지된 행위를 의미한다. 넷째, 재산 비행은 절

도와 같이 타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빼앗는 행위를 의미한다.

김헌수와 김현실(2000)은 청소년 비행 행동의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에서 요인 분석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비사회적 비행, 공격적 비행, 정신병질적 비행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비사회적 비행은 가출, 무단결석, 패싸움, 등의 문제행동과 절도, 파손 등의 경미한 재산범의 행위이다. 둘째, 공격적 비행은 사람에게 대한 신체적 상해, 방화, 약물남용 등 반사회적 비행에 비해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행위이다. 셋째, 정신병질적 비행은 자아 통제력의 결여로 인해 충동적이고 즉각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또한 김준호와 이동원(1996)은 청소년 비위를 지위 비행, 폭력 비행, 도피 비행, 재산 비행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지위 비행은 청소년 신분에 적합하지 않은 음주, 흡연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둘째, 폭력 비행은 타인을 협박하여 돈을 뺏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등 크고 작은 폭력적 행동을 의미한다. 셋째, 도피 비행은 약물남용이나 가출, 무단결석 등과 같이 일상에서의 도피 혹은 회피를 위한 비행 행위를 의미한다. 넷째, 재산 비행은 절도와 같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박혜숙과 김양곤(2014)은 비행을 지위 비행, 중 비행, 사이버 비행으로 분류하였다. 지위 비행은 청소년의 신분으로 인해 비행으로 간주하는 행위이며 중 비행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폭력 비행, 성비행, 재산 비행을 말한다. 또한 사이버 비행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발생하는 비행을 뜻한다.

5. 사이버 비행

5.1 사이버 비행의 개념

비행의 개념과 범위는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아 변화할 수 있다(이종원 외, 2016).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비행이 확산하였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행은 비행의 한 유형으로 새로이 구분되고 있다(유영재, 심호규, 2010). 특히 청소년은 사이버 공간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이버상의 부적절한 정보와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전동일 외, 2008).

사이버 비행은 청소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욕설, 허위사실, 협박 등의 내용을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의 형태로 게시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승현 외, 2015; 이종원 외, 2016; 전동일 외, 2008).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사이버 비행을 사이버 일탈, 사이버 폭력, 사이버 불링, 사이버범죄 등의 용어와 유사한 의미로 혼용하고 있다(김동하, 2021). 이성식(2004)은 사이버 일탈을 범죄로 규정된 사이버범죄 외에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의 신분에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행동들로 정의했다. 정완

(2005)은 사이버 폭력을 정보통신망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판, 이메일과 같은 전달 수단을 통해 게시물, 사진, 동영상 등의 형태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 설명하였다. 또한 사이버 불링은 이메일, 채팅, 소셜 미디어와 같은 전자 매체를 통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설명된다(Hinduja & Patchin, 2011).

원혜욱(2000)은 사이버범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네트워크상에서 이뤄지는 사이버 비행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한 번에 수많은 대상에게 누군가의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나 바이러스 등을 유포할 수 있다(고명지, 2003). 둘째, 사이버 공간에서는 쉽고 즉흥적으로 불특정 다수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 행위가 현실 세계보다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자신의 실제 모습을 숨길 수 있다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쉽게 저지른다. 넷째, 인터넷의 쌍방향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과 정보를 주고받고 소통하기 수월하다. 따라서 채팅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음란물을 주고받거나 루머를 조장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에 동조하고 가담하기 수월하다. 다섯째, 지리적 제한 없이 국제적으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여 쉽게 국가나 기업의 기밀이나 비밀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터넷은 편리함 이면에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최영호, 1997). 이러한 특징을 지닌 사이버 비행은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을 매개로 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나 권익을 침해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전반적인 행위들을 의미한다(성동규 외, 2006).

5.2 사이버 비행의 유형

정완(2005)은 사이버 비행을 7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사이버 모욕은 특정 대상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하는 것이다. 둘째, 사이버명예훼손은 특정 대상에 대한 허위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셋째, 사이버 성희롱은 성적 대화를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로 타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넷째, 음란 스팸메일은 성적 혹은 폭력적 내용을 담은 글이나 영상을 이메일을 통해 유포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이버 스토킹은 채팅,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해 타인이 원치 않는 접근을 지속해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유발하는 것이다. 여섯째, 사이버 성매매는 인터넷을 통해 원조교제를 유도하거나 10대 매매춘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이다. 일곱째, 사이버 음란물은 몰래카메라 등 현실에서 만들어진 내용의 영상 등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Willard(2007)는 사이버 불링을 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유해물을 유포 및 게시하거나 다른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사이버 폭력의 종류로

욕설(Flaming), 스토킹(Cyberstalking), 모욕(Harassment), 폭로(Outing), 명예훼손(Denigration), 위장(Impersonation), 배제(Exclusion) 등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욕설은 게시판, 채팅, 게임 등 사이버 공간 속에서 타인에게 공격적이고 저속하며 무례한 위협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스토킹은 특정 대상에게 위협적이거나 유해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원치 않는 접촉을 지속하는 행위이다. 셋째, 모욕은 욕설에 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개인 혹은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넷째, 폭로는 타인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담은 이미지나 메시지 등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이다. 다섯째, 명예훼손은 특정 대상의 명예에 해를 입힐 수 있는 거짓 된 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이다. 여섯째, 위장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위장한 채로 사이버 상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일곱째, 배제는 특정 대상을 의도적으로 집단이나 모임에서 제외하면서 심리적 충격을 가하는 행위이다.

또한 사이버 비행은 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이버 사기와 사이버 폭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이종원 외, 2016). 첫째, 사이버 사기는 개인정보 도용, 허위 정보 유포 등과 같이 의도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서 기만하는 행위이다. 둘째, 사이버 폭력은 해킹이나 욕설과 같이 사이버상에서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공격적 행동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이승현 외(2015)는 사이버 비행을 욕하기, 나쁜 소문내기, 저격 글, 집중 공격,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감옥, 아이디 도용, 신상 털기, 사이버 절취, 와이파이 셔틀, 사이버 명령, 사이버 성희롱, 이미지 유포, 플레이밍, 사이버따돌림의 1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직접 욕하기는 타인에게 욕설이나 험한 말을 직접 보내는 것이다. 둘째, 나쁜 소문내기는 타인에 대한 욕이나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셋째, 저격 글은 누군가를 괴롭히려는 의도로 저격 글을 게시하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집중공격은 사이버 상에서 특정 대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다섯째, 사이버 스토킹은 상대방이 싫어하더라도 지속해서 말, 글, 그림 등을 전송하여 스토킹하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사이버 감옥은 인터넷 대화방에서 특정 대상을 초대할 후 퇴장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부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대화방에 초대하는 것을 뜻한다. 일곱째, 사이버 도용은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계정을 만들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다. 여덟째, 신상 털기는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고 공개하는 행위이다. 아홉째, 사이버 절취는 게임 아이템, 사이버 머니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열째, 와이파이 셔틀은 타인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열한째, 사이버 명령은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원치 않는 행동을 억지로 하게끔 강요하는 것이다. 열두째, 사이버 성희롱은 성적인 글,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열셋째, 이미지 유포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사진이나

이미지,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열넷째, 플레이밍은 사이버 상에서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 상대방의 욕설을 유도하거나 부정적인 성격으로 비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열다섯째, 따돌림은 인터넷 대화방에 의도적으로 특정 대상을 참가시키지 않거나 대화나 글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현실 및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의 3차년도 자료 중 중학교 3학년 패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KCYPS 2018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종단연구로 아동·청소년의 복합적인 성장과 발달의 변화 양상을 다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패널 표본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생 1학년인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다단계층화 집락표집(Multi-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방식으로 총 5,197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그 중 중학교 1학년은 2,590명이 최초로 참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이 응답의 자료 중 응답에 성실히 참여한 2,384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N=2,384)	남	1278	53.6
	여	1106	46.4
부학력 (N=2,274)	고졸 이하	685	30.1
	대졸 이상	1589	69.9
모학력 (N=2,313)	고졸 이하	753	32.6
	대졸 이상	1560	67.4
월 평균 가구 소득 (N=2,380)	300만 미만	293	12.3
	300만 이상~700만 미만	1,639	68.9
	700만 이상	448	18.8
자녀 수 (N=2,380)	1명	343	14.4
	2명	1,457	61.2
	3명	503	21.1
	4명 이상	77	3.2

2. 연구도구

2.1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실제로 지닌 특성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각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더욱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경주, 오경자, 2002; 정문자, 김문정, 2004; 임선영, 2015; Schaefer, 1965). 따라서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kinner 외(2005)의 청소년용 부모 양육태도척도(PSCQ_A)를 김태명, 이은주(2017)가 수정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 모형 양육태도척도(PSCQ_KA) 24문항 중 부정적 양육태도 요인인 강요(4문항), 거부(4문항), 비일관성(4문항)에 대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문항과 신뢰도(Chronbach's α)는 <표 3>과 같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로 구성되어있는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3> 부모 양육태도의 문항구성

하위 영역	문항번호	Chronbach's α
강요	5, 6, 7, 8	.807
거부	1, 2, 3, 4	.797
비일관성	9, 10, 11, 12	.800
전체		.882

2.2 사회적 위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위축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일부 수정 및 재구성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 척도(김선희, 김경연, 1998)를 사용하였으며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 등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로 구성되어있는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가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척도의 신뢰도(Chronbach's α)는 .880이다.

2.3 공격성

공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봉환, 임경희(2003)의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에서 일부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구성은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등의 6개로 이루어져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로 구성되어있는 4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Chronbach's α)는 .857이다.

2.4 현실 비행

청소년기 자녀의 현실 비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척도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의 관련 기존 문항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등의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다’(1점), ‘1년에 1 ~ 2번’(2점), ‘한 달에 1번’(3점), ‘한 달에 2~ 3번’(4점), ‘1주일에 1번’(5점), ‘1주일에 여러 번’(6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현실 비행의 빈도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본 척도의 신뢰도(Chronbach's α)는 .813이다.

2.5 사이버 비행

중학생 자녀의 사이버 비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2015)의 청소년 사이버 안전 실태조사 문항 중 사이버 비행 가해 경험에 대한 ‘누군가에게 욕이나 험한 말을 직접 보낸 적이 있다.’, ‘누군가에 대한 욕이나 나쁜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적이 있다.’ 등의 1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없다’(1점), ‘1년에 1 ~ 2번’(2점), ‘한 달에 1번’(3점), ‘한 달에 2~ 3번’(4점), ‘1주일에 1번’(5점), ‘1주일에 여러 번’(6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 비행의 빈도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본 척도의 신뢰도(Chronbach's α)는 .752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이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과 어떠한 구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통계 소프트웨어 SPSS 18.0 및 AMOS 23.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에 사용된 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변인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고 변수 간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 간의 관련성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확인적 요인분석(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다섯째, 구조방정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활용하여 경로 관계를 분석하였고 매개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고자 팬텀 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부정적 양육태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의 구조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1 기술통계

측정모형 검증에 앞서 실시한 기술통계분석의 결과는 <표 4>과 같다. 구조방정식의 최대우도법은 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전제하에 진행함에 따라 왜도와 첨도를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변인들의 정규성 확보는 왜도의 경우 절대값 3 이하, 첨도의 경우 절대값 1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Kline, 2005). 독립변수인 부정적 양육태도와 매개변수인 사회적 위축, 공격성의 경우 정규성 기준에 충족하며 정규분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종속변수인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은 데이터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규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각 비행 척도의 응답이 1인 경우가 많아 데이터가 좌측에 편향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의 값은 정규분포에 근접해지도록 로그값으로 변환하였다. 단 변환된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의 값도 정규분포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매개효과 검증 등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허원무, 2013). 나아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비행 변인의 측정값으로 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유연주, 2021; 염효원, 2022; 정소희, 2009)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더 변형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4>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변수		최소값	최대값	M	SD	왜도	첨도
부정적 양육태도	강요	4.00	16.00	8.770	2.633	.208	-.401
	거부	4.00	16.00	7.323	2.489	.590	.288
	비일관성	4.00	16.00	8.224	2.496	.185	-.208
사회적 위축		5.00	20.00	10.858	3.570	.176	-.516
공격성		6.00	24.00	11.165	3.605	.387	-.334
현실 비행		4.83	8.67	4.910	.308	6.496	54.930
사이버 비행		4.83	8.72	4.918	.276	6.262	59.132

1.2 차이검정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강요, 거부, 비일관성과 사회적 위축, 공격성, 현실 비행, 사이버 비행의 평균점수 차이를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간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중에서 강요는 성별에 따라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중에서 거부와 비일관성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여학생 집단(M=8.586, SD=2.608)보다 남학생 집단(M=8.930, SD=2.645)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강요적인 것으로 지각한 것을 알 수 있다, $t(2384)=3.191, p<.01$. 사회적 위축에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2384)=-2.566, p<.05$), 이는 여학생 집단(M=11.060, SD=3.630)이 남학생 집단(M=10.684, SD=3.510)보다 더 사회적으로 위축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격성도 여학생 집단(M=11.405, SD=3.670)에서 남학생 집단(M=10.958, SD=3.538)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84)=-3.026, p<.05$). 반면에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에서는 여학생 집단(M=4.885, SD=.259, M=4.892, SD=.235)보다 남학생 집단(M=4.933, SD=.343, M=4.941, SD=.305)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384)=3.840, p<.001, t(2384)=4.450, p<.001$). 이는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주요 변인의 남녀집단 간 평균 차이검정

변수		N	M	SD	t	
부정적 양육태도	강요	남	1278	8.930	2.645	3.191**
		여	1106	8.586	2.608	
	거부	남	1278	7.313	2.485	-.228
		여	1106	7.336	2.496	
	비일관성	남	1278	8.217	2.499	-0.170
		여	1106	8.234	2.493	
사회적 위축	남	1278	10.684	3.510	-2.566*	
	여	1106	11.060	3.630		
공격성	남	1278	10.958	3.538	-3.026*	
	여	1106	11.405	3.670		
현실 비행	남	1278	4.933	.343	3.840***	
	여	1106	4.885	.259		
사이버 비행	남	1278	4.941	.305	4.450***	
	여	1106	4.892	.235		

* $p<.05$, ** $p<.01$, *** $p<.001$

1.3 상관분석

구조 모형 검증 전 부정적 양육태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내용은 <표 6>과 같다. 변수들은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변수 간 .80이상 상관계수 절대값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관 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강요($r = .173, p < .001$), 거부($r = .165, p < .001$), 비일관성($r = .274, p < .001$)과 사회적 위축과의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강요($r = .204, p < .001$), 거부($r = .297, p < .001$), 비일관성($r = .363, p < .001$)은 공격성과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강요($r = .056, p < .01$), 거부($r = .050, p < .05$), 비일관성($r = .075, p < .001$)은 현실 비행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넷째,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강요($r = .051, p < .05$), 거부($r = .096, p < .001$), 비일관성($r = .116, p < .001$)은 사이버 비행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섯째, 사회적 위축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r = .372, p < .001$).

여섯째, 사회적 위축은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일곱째, 공격성은 현실 비행($r = .132, p < .001$)과 사이버 비행($r = .122, p < .001$)과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표 6>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부정적 양육태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현실 비행	사이버 비행
	강요	거부	비일관성				
부정적 양육태도	강요	1					
	거부	.581***	1				
	비일관성	.643***	.562**	1			
사회적 위축		.173***	.165***	.274***	1		
공격성		.204***	.297***	.363***	.372***	1	
현실 비행		.056**	.050*	.075***	-.013	.132***	1
사이버 비행		.051*	.096***	.116***	-.004	.122***	.623***

* $p < .05$, ** $p < .01$, *** $p < .001$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2.1 측정 모형 분석

측정모형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 중 공격성, 현실 비행, 사이버 비행의 경우 각 3개의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로 구성하였다. 문항 꾸러미는 다수의 측정 문항에 대한 합산이나 평균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개별 문항을 모두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다변량 정규성 가정의 위반과 추정 모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모델의 적합도를 개선한다(조현철, 강석후, 2007).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기 위해 잠재변수의 문항들을 탐색적 요인분석 하였으며 가장 큰 요인 적재치와 가장 작은 요인 적재치를 보인 문항들을 짝지어 꾸러미를 생성하였다. 문항 꾸러미의 구성은 <표 7>과 같다.

<표 7> 문항 꾸러미의 문항구성

변수		문항번호
공격성	공격성1	4, 6
	공격성2	2, 5
	공격성3	1, 3
현실 비행	현실 비행1	1, 6, 10, 12, 15
	현실 비행2	3, 5, 7, 13, 14
	현실 비행3	2, 4, 8, 9, 11
사이버 비행	사이버 비행1	1, 4, 5, 8, 10
	사이버 비행2	7, 11, 12, 13, 14
	사이버 비행3	2, 3, 6, 9, 15

이처럼 설정한 측정 변인들이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를 적절히 반영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검증방식의 첫 단계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실 비행에 대한 측정모형은 <표 8>, 사이버 비행에 대한 측정모형은 <표 9>와 같이 요인 부하량과 유의수준이 확인되었다. 요인 부하량은 .563~.885으로 모두 .5보다 컸으며 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든 잠재 변인은 측정 변인들에 의해 적절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적합도는 χ^2 통계량과 증분 적합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그리고 절대 적합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χ^2 검증의 경우, χ^2 통계량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보지만 이는 표본 크기의 영향을 쉽게 받아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χ^2 통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χ^2 검정은 적합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적합도 지수를 참고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TLI와 CFI는 .90 이상일 때, RMSEA는 .80 이하일 때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본다(홍세희, 2000). 현실 비행에 대한 연구모형과 사이버 비행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10>과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 비행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모형의 경우 $\chi^2=536.677(71)$, CFI=.971, TLI=.962, RMSEA=.052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이버 비행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의 경우 $\chi^2=552.903(71)$, CFI=.968, TLI=.959, RMSEA=.053으로 확인되었다. 즉 두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적절한 수준임에 따라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8> 현실 비행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측정변수	Estimate		S.E.	C.R.	
	B	β			
부정적 양육태도	강요	1	.781		
	거부	.860	.710	.027	31.968***
	비일관성	.998	.822	.029	34.111***
사회적 위축	사회적위축1	1	.746		
	사회적위축2	1.098	.843	.027	40.233***
	사회적위축3	.952	.769	.026	36.714***
	사회적위축4	.967	.789	.026	37.705***
	사회적위축5	.962	.715	.028	34.009***
공격성	공격성1	1	.806		
	공격성2	.982	.800	.024	41.539***
	공격성3	1.106	.884	.025	44.576***
현실비행	현실비행1	1	.769		
	현실비행2	.720	.787	.020	35.146***
	현실비행3	.806	.821	.023	35.567***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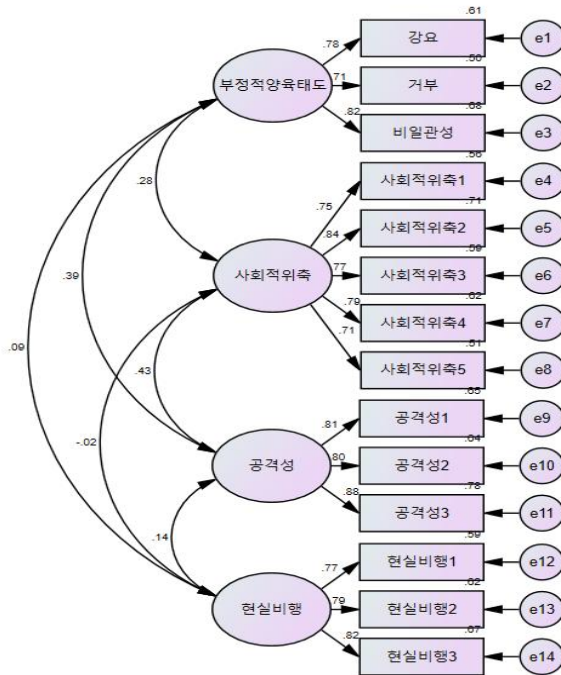
<표 9>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측정변수	Estimate		S.E.	C.R.
	B	β		
부정적 양육태도	강요	1	.781	
	거부	.859	.710	.036
	비일관성	.999	.823	.036
사회적 위축	사회적위축1	1	.746	
	사회적위축2	1.098	.843	.027
	사회적위축3	.952	.769	.026
	사회적위축4	.966	.789	.026
	사회적위축5	.962	.715	.028
공격성	공격성1	1	.806	
	공격성2	.981	.799	.024
	공격성3	1.108	.885	.025
사이버 비행	사이버비행1	1	.563	
	사이버비행2	.693	.764	.029
	사이버비행3	.860	.841	.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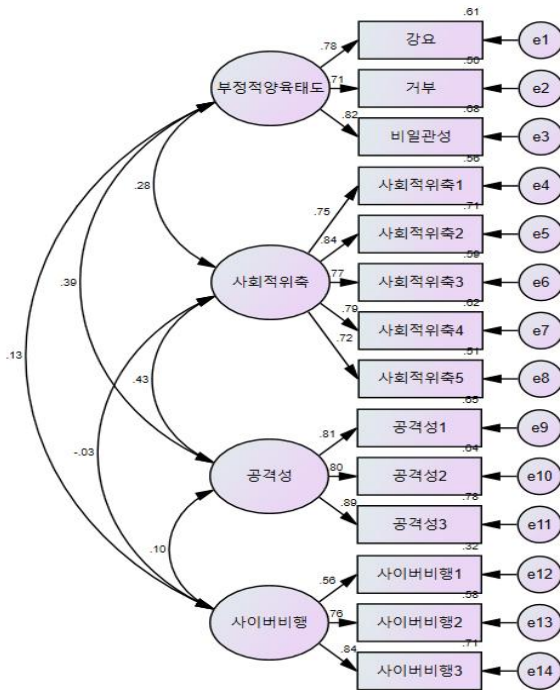
*** $p < .001$

<표 10> 측정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모형	χ^2	df	CFI	TLI	RMSEA
현실 비행	536.677	71	.971	.962	.052
사이버 비행	552.903	71	.968	.959	.053



[그림 3] 현실 비행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그림 4]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2.2 구조 모형 분석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연구모형의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조모형의 요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표 11>과 <표 12>와 같다. 우선 현실 비행에 대한 연구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각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우선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78, p < .001$). 즉,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자녀는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된다. 다음으로 부정적 양육태도는 공격성에도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97, p < .001$). 따라서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될수록 자녀의 공격성은 높아진다. 반면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현실 비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5$).

둘째, 매개변수인 사회적 위축의 경우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43, p < .001$). 즉 자녀가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 자녀가 경험하는 공격성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위축은 현실 비행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08, p < .05$). 이는 청소년 자녀가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 현실 비행을 저지르는 빈도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셋째, 매개변수인 공격성의 경우 현실 비행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71, p < .001$). 즉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현실 비행을 저지르는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이버 비행에 대한 연구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78, p < .001$). 즉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할수록 자녀는 사회적으로 위축된다. 다음으로 부정적 양육태도는 공격성에도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97, p < .001$). 즉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공격성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사이버 비행 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beta = .118, p < .001$).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청소년 자녀가 저지르는 사이버 비행의 빈도는 증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매개변수인 사회적 위축의 경우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43, p < .001$). 즉 청소년 자녀가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 공격성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 위축은 사이버 비행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08, p < .001$). 이는 청소년 자녀가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 사이버 비행을 저지르는 빈도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셋째, 매개변수인 공격성의 경우 사이버 비행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97, p < .001$). 즉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이버 비행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현실 비행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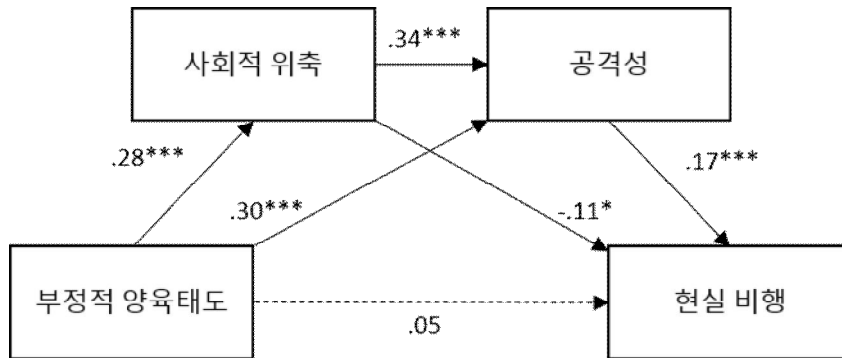
경로	Estimate		S.E	C.R.
	β	β		
부정적 양육태도→사회적 위축	.091	.278	.008	11.403***
부정적 양육태도→공격성	.158	.297	.013	12.528***
부정적 양육태도→현실비행	.003	.05	.001	1.803
사회적 위축→공격성	.556	.343	.038	14.691***
사회적 위축→현실비행	-.018	-.108	.004	-4.001*
공격성→현실비행	.017	.171	.003	5.89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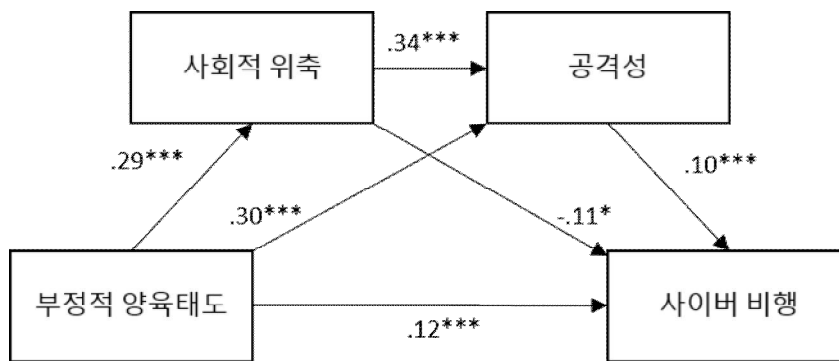
<표 12>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경로	Estimate		S.E	C.R.
	β	β		
부정적 양육태도→사회적 위축	.091	.278	.008	11.413***
부정적 양육태도→공격성	.157	.297	.013	12.516***
부정적 양육태도→사이버비행	.005	.118	.001	4.166***
사회적 위축→공격성	.556	.343	.038	14.688***
사회적 위축→사이버비행	-.015	-.108	.004	-3.907***
공격성→사이버비행	.008	.097	.002	3.307***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5] 현실 비행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그림 6]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2.3 매개 효과 분석

2.3.1 효과 분해

연구모형의 경로가 대부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정적 양육태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이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직접 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3>, <표 14>과 같다.

먼저 현실 비행에 대한 연구모형의 간접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095, $p < .01$), 부정적 양육태도가 현실 비행에 미치는 간접효과(.037, $p < .05$), 그리고 사회적 위축이 현실 비행에 미치는 간접효과(.059, $p < .01$)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현실 비행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정적 양육태도 → 사회적 위축	.278***		.278***
부정적 양육태도 → 공격성	.297***	.095**	.393**
부정적 양육태도 → 현실비행	.05	.037*	.087**
사회적 위축 → 공격성	.343***	.	.343***
사회적 위축 → 현실비행	-.108***	.059**	-.05*
공격성 → 현실비행	.171***		.171***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사이버 비행에 대한 연구모형의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부정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095, $p < .001$)와 사회적 위축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간접효과(.033, $p < .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부정적 양육태도가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간접효과(.008)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 위축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직접효과(-.108, $p < .001$)와 공격성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직접효과(.097, $p < .001$)가 상반되는 효과를 나타내면서 부정적 양육태도가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의 유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이처럼 Amos를 통한 부트스트래핑 검증 시 전체적인 간접효과만 도출되기 때문에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개별 매개효과나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각각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14>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정적 양육태도 → 사회적 위축	.278***		.278***
부정적 양육태도 → 공격성	.297***	.095***	.393**
부정적 양육태도 → 사이버비행	.118***	.008	.126**
사회적 위축 → 공격성	.343***		.343***
사회적 위축 → 사이버비행	-.108*	.033***	-.062**
공격성 → 사이버비행	.097***		.097***

* $p < .05$, ** $p < .01$, *** $p < .001$

2.3.2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개별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을 거쳐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으로 가는 경로의 이중 매개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해당 모형에서는 총 3가지 경로가 존재한다. 첫째,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사회적 위축을 거쳐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으로 가는 경로이다. 둘째,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공격성을 거쳐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으로 가는 경로이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을 모두 거쳐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으로 가는 경로이다.

두 개의 매개변수인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개별 매개효과 및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펜텀변수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진행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검증은 매개효과의 분포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Shrout & Bolger, 2002).

우선 <표 15>와 같이 현실 비행에 대한 연구모형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개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적 양육태도와 현실 비행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은 95%의 신뢰구간에서 -.003에서 -.001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이며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사회적 위축은 부정적 양육태도와 현실 비행의 관계에서 개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정적 양육태도와 현실 비행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95%의 신뢰구간에서 .002에서 .004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이면서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격성은 부정적 양육태도와 현실 비행의 관계에서 개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이버 비행에 대한 연구모형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개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은 95%의 신뢰구간에서 -.002에서 -.001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여 0을 포함하지 않고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은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이버 비행의 관계에서 개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95%의 신뢰구간에서 .001에서 .002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나타내어 0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공격성은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이버 비행의 관계에서 개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각각 개별적인 매개효과를 가진다.

2.3.3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이중 매개효과

다음으로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이중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현실 비행으로 가는 경로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이중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95%의 신뢰구간에서 .001에서 .001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여 0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적 양육태도와 현실 비행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이중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서 사이버 비행으로 가는 경로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이중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매개효과 계수는 95%의 신뢰구간에서 .000에서 .001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보이면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며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이버 비행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이중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효과분해를 통해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이버 비행의 관계의 총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달리, 팬텀변수를 활용한 매개변인의 개별 매개효과 및 이중 매개효과 검증은 모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15> 현실 비행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Estimate	S.E	95% 신뢰구간
부정적 양육태도 → 사회적위축 → 현실비행	-.002	.000	-.003 ~ -.001
부정적 양육태도 → 공격성 → 현실비행	.003	.001	.002 ~ .004
부정적 양육태도 → 사회적위축 → 공격성 → 현실비행	.001	.000	.001 ~ .001

주. 위의 수치는 비표준화 계수임.

<표 16>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Estimate	S.E	95% 신뢰구간
부정적 양육태도 → 사회적위축 → 사이버비행	-.001	.000	-.002 ~ -.001
부정적 양육태도 → 공격성 → 사이버비행	.001	.001	.001 ~ .002
부정적 양육태도 → 사회적위축 → 공격성 → 사이버비행	.000	.000	.000 ~ .001

주. 위의 수치는 비표준화 계수임.

2.4 다중집단분석

확인한 바와 같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을 매개하여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설정한 구조모형의 잠재변수 간 경로에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은 두 집단의 모수치를 비교하여 서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분석 방법이다(배병렬, 2017). 다중집단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동일성을 검증한 후 구조모형분석을 진행하였다.

2.4.1 측정 동일성 검증

우선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든 변수를 동일하게 인식하였는지, 두 집단의 연구 모형이 동일한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측정동일성 검증을 진행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다음의 5단계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첫째, 비제약모형은 요인계수, 공분산 등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이다. 둘째, 제약모형1은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로 가는 요인계수를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다. 셋째, 제약모형2는 잠재변수들의 공분산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다. 넷째, 제약모형3은 요인계수와 공분산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다. 다섯째, 제약모형4는 요인계수와 공분산, 오차분산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다. 측정동일성은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1의 χ^2 차이로 검증한다.

먼저 현실 비행에 대한 연구모형의 경우, 비제약모형 적합도는 $\chi^2=680.267(p<.05)$, CFI=.966, TLI=.957, RMSEA=.040로 집단 간 형태동일성은 만족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1을 비교해보았을 때 제약모형1은 $\chi^2=717.599$, $df=152$ 으로 두 모형의 χ^2 차이는 37.332($df=10$)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모형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측정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χ^2 값은 표본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CFI, TLI, RMSEA와 같이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로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고 특히 CFI 차이 값이 .01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홍세희, 2000; Cheung & Rensvold, 2002; Vandenberg & Lance, 2000). 따라서 현실 비행에 대한 연구모형에서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1의 CFI, TLI, RMSEA 차이는 크게 나빠지지 않고 CFI 차이 값이 .01을 넘지 않기 때문에 측정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가정하여 경로분석 진행이 가능하다.

<표 17> 현실 비행 연구모형의 측정동일성 검정

경로	χ^2	df	CFI	TLI	RMSEA
비제약모형	680.267	142	.966	.957	.040
제약모형1 ¹⁾	717.599	152	.965	.958	.040
제약모형2 ²⁾	707.485	152	.965	.959	.039
제약모형3 ³⁾	962.893	176	.951	.949	.043
제약모형4 ⁴⁾	1326.784	190	.929	.932	.050

- 1)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제약
- 2)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
- 3) 요인계수,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
- 4) 요인계수, 공분산, 오차분산을 동일하게 제약

다음으로 사이버 비행에 대한 연구모형의 경우, 비제약모형 적합도는 $\chi^2=681.754(p<.05)$, CFI=.965, TLI=.955, RMSEA=.043으로 확인되어 집단 간 형태동일성은 만족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1을 비교해보았을 때 제약모형1은 $\chi^2=715.518$, $df=152$ 이며 두 모형의 χ^2 차이는 33.764($df=10$)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동일성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CFI 차이 값이 .01을 초과하여 떨어지지 않으므로 측정동일성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비행 모형도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8>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의 측정동일성 검정

경로	χ^2	df	CFI	TLI	RMSEA
비제약모형	681.754	142	.965	.955	.043
제약모형1 ¹⁾	715.518	152	.963	.956	.042
제약모형2 ²⁾	711.104	152	.963	.956	.042
제약모형3 ³⁾	950.602	176	.949	.948	.046
제약모형4 ⁴⁾	1328.768	190	.922	.925	.054

- 1)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제약
- 2)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
- 3) 요인계수,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
- 4) 요인계수, 공분산, 오차분산을 동일하게 제약

2.4.2 경로 분석

먼저 현실 비행에 대한 연구모형에서 변수 간의 경로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남학생 집단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284, p<.001$). 동일하게 여학생 집단에서도 부정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269, $p < .001$).

둘째, 남학생 집단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16, p < .001$). 마찬가지로 여학생 집단에서도 부정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82, p < .001$).

셋째, 남학생 집단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현실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학생 집단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현실 비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 = .081, p < .05$).

넷째, 남학생 집단에서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31, p < .001$). 또한 여학생 집단에서도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52, p < .001$).

다섯째, 남학생 집단에서 사회적 위축이 현실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13, p < .01$). 마찬가지로 여학생 집단에서도 사회적 위축이 현실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93, p < .05$).

여섯째, 남학생 집단에서 공격성이 현실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 p < .001$). 동일하게 여학생 집단에서도 공격성이 현실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41, p < .001$).

마지막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위축, 공격성, 현실 비행의 구조모형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로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p 값이 .05 미만이고 CR값은 |1.96| 이상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공격성에서 현실 비행으로 가는 경로가 $p < .05$ 에서 남학생은 $\beta = .21$, 여학생은 $\beta = .141$ 의 경로계수를 나타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R = |-2.112| > 1.96$).

<표 19> 현실 비행 연구모형의 다중집단분석

경로	남자			여자			경로 차이
	β	β	<i>S.E.</i>	β	β	<i>S.E.</i>	
부정적 양육→사회적위축	.095***	.284***	.011	.085***	.269***	.011	-.600
부정적 양육→공격성	.157***	.316***	.016	.159***	.282***	.02	.063
부정적 양육→현실비행	.001	.018	.002	.004*	.081*	.002	.972
사회적위축→공격성	.493***	.331***	.047	.623***	.352***	.061	1.688
사회적위축→현실비행	-.020**	-.113**	.006	-.014*	-.093*	.006	.627
공격성→현실비행	.025***	.21***	.005	.012***	.141***	.004	-2.112*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사이버 비행에 대한 연구모형에서 변수 간의 경로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0>과 같다.

첫째, 남학생 집단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84, p < .001$). 여학생 집단에서도 부정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69, p < .001$).

둘째, 남학생 집단에서 부정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16, p < .001$). 이와 동일하게 여학생 집단에서도 부정적 양육태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82, p < .001$).

셋째, 남학생 집단에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사이버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beta = .108, p < .01$) 여학생 집단에서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사이버 비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beta = .081, p < .01$).

넷째, 남학생 집단에서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31, p < .001$). 또한 여학생 집단에서도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52, p < .001$).

다섯째, 남학생 집단에서 사회적 위축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6, p < .01$). 반면에 여학생 집단에서는 사회적 위축이 사이버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남학생 집단에서 공격성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90, p < .05$). 마찬가지로 여학생 집단에서도 공격성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41, p < .01$).

단, 현실 비행에 대한 연구모형과 달리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에서는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20> 사이버 비행 연구모형의 다중집단분석

경로	남자			여자			경로 차이
	β	β	S.E.	β	β	S.E.	
부정적 양육→사회적위축	.095***	.284***	.011	.085***	.269***	.011	-.624
부정적 양육→공격성	.157***	.316***	.016	.158***	.282***	.019	.025
부정적 양육→사이버비행	.005**	.108**	.002	.005**	.081**	.005	-.243
사회적위축→공격성	.493***	.331***	.047	.622***	.352***	.061	1.682
사회적위축→사이버비행	-.020**	-.136**	.006	-.007	-.093	.005	1.768
공격성→사이버비행	.009*	.090*	.008	.012**	.141**	.003	-.247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1. 논의

최근 청소년 비행이 저연령화되고 잔혹화되는 현실에 비해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영향과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 및 개입 전략과 청소년의 내·외재적 문제 완화 방안 수립 및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중 3차년도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 2,384명의 응답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을 매개로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현실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사이버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사이버 비행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권위주의적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이버 폭력 참여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Zurcher et al., 2018)와 불충분한 부모의 감독·통제는 사이버 비행의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Padır, Ayas, & Horzum, 2021)를 지지한다. 또한 국내 연구 중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비밀관적이고 간섭적이며 방임적일 때 사이버 비행 행동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윤정화, 김성희, 2020)와 부모의 강요적인 양육태도는 사이버 비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박선숙, 2021; 최영, 김현수, 2018)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나아가 부모가 거부적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도덕적 이탈이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이버 비행에 개입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11). 즉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강요, 거부, 비밀관성 모두 사이버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로부터 강요, 거부, 비밀관성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를 강하게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 사이버 비행에 더 참여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에서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으로 가는 경로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개별 매개효과 및 이중 매개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우선 사회적 위축은 유의한 부적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사이버 공간으로 도피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사이

비 비행은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사이버 비행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이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자녀는 사회적으로 더욱 위축되며 (김재윤 외, 2020; 조정숙, 박경애, 2021) 사회적 위축은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김선아, 2017; 김진, 하문선, 2020; 조예진 외, 2015)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될수록 스마트폰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이는 사이버 비행 수준을 높아지게 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김경민, 2021). 반면에 남은정과 배희분(201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위축은 현실 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홍성삼(2020)도 사회적 위축은 중학생의 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 자녀는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강요, 거부, 비밀관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현실 세계에서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거나 대인 관계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이다(Rubin, Coplan, & Bowker, 2009).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의 비행을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오히려 이는 현실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회피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위축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은 정적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강요, 거부, 비밀관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공격성은 증가하고 이는 현실 비행뿐 아니라 사이버 비행 행동의 빈도를 높인다. 이는 비행 청소년의 경우 높은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을 보인다는 연구(Craig, 1998)와 행동적 공격성과 적대감이 사이버 비행 가해 경험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아름 외, 2014)와 남자 중학생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이버 비행 가해 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양영석 외, 2016). 또한 청소년이 공격적인 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현실에서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공격적 성향을 더 표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익명성의 특성을 가진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의 공격성을 분출하는 창구로 활용된다는 연구 내용과도 유사하다(이슬기, 2019).

다음으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을 이중 매개하여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 즉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더 위축되고 더 높은 공격성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 가해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이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사회적 위축을 매개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종희, 2021; 조정숙, 박경애, 2021)를 지지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경우 타인에 대

한 긴장과 분노가 유발되어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한 연구와(유연주, 2021) 공격성은 현실 비행(진혜민 외, 2011)과 더불어 사이버 비행(박자양, 2005)에도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맥락이 일치한다. 앞서 사회적 위축은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이중 매개효과의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적 문제는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문제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비행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 간의 경로에서 성별 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실 비행에 대한 연구 모형에서는 공격성에서 현실 비행으로 가는 경로의 차이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보다 남학생은

공격성이 현실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남학생의 경우 주도적 공격성이 비행을 더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Roland, E., & Idsøe, T., 2001). 반면, 사이버 비행 모형에서 변인 간의 경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현실 비행과 사이버 비행 행동에 기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활동 참여 수준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부모, 교사 등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김혜선, 이지민, 2016). 나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검사를 진행하여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에게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기술 훈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제공과 같은 상담적·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공격성이 현실 비행 혹은 사이버 비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동아리, 봉사, 문화 활동 등 청소년의 공격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적합하게 순화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우 상황을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 왜곡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인지적 치료로 개입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나아가 남학생의 경우 공격성이 현실 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남학생의 공격적 행동이 강화되지 않도록 부모와 교사의 바람직한 지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청소년 특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

되어야 하며 부모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양육과 관련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부터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 수립을 위한 인성 교육이 필요하며 부모는 자녀의 좋은 본보기로서 가정 내부에서 자녀가 폭력적, 공격적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행 행동을 저지르는 청소년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혹은 부모의 지지 경험 등 양육환경을 파악하고 더불어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수준을 확인하여 비행의 원인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의 주된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1). 또한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에서도 사이버 폭력 가해 행위의 주요 이유는 보복과 장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한 사회성 훈련과 폭력적 비행 행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윤리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현실 비행뿐 아니라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 및 청소년 자녀의 개인적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두 가지 유형의 비행에 대한 위험요인을 동시에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실 세계와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책과 대응 방안 마련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사용된 척도는 측정 변인들을 제한적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의 다양한 하위 유형을 측정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대부분이 비행 경험이 없는 청소년으로, 비행 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위축, 공격성 그리고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의 관계를 탐색해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의 응답 자료만을 활용하여 횡단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여 종단 연구를 진행하여 발달 시점에 따른 각 변수의 영향력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현실 비행 및 사이버 비행과 관련하여 부모 요인과 청소년 자녀의 개인적 요인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사회적 위축, 공격성만을

살펴보았으나 청소년의 비행은 개인 특성, 가정환경, 또래 관계, 학교생활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더 복합적으로 탐색하여 청소년 비행의 연구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득구 의원실 보도자료(2021.10.01). 학폭 가해학생 중징계 비율 크게 높아져.
<https://blog.naver.com/dulipapa/222523245602>
- 고명지(2003).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202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곽금주(1992). 공격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곽혜경(2008). 중학생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완벽주의, 공격성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2021).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권석만, 서수균(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1(2), 487-501.
- 권연희(2013). 유아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행동과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정서조절전략의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2), 215-238.
- 기유나(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민(202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5), 345-356.
- 김경수, 김화경(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9(2), 143-170.
- 김경호(2014). 초기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스트레스 및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1(2), 1-22.
- 김귀연, 김경연(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아동학회지**, 26(6), 247-266.
- 김금순, 김은미(2015).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38, 33-57.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나영, 황혜영(2018). 비행행동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향점수를 활용한 분석. **교육연구논총**, 39(3), 31-54.
- 김동하(2021). 청소년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발달궤적의 예측요인. **한국사회복지학**,

73(1), 127-149.

- 김민서, 전수영, 조연수, 전훈정(2018). 비행경험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1(1), 1-9.
- 김선아(2017). 고등학교 청소년의 부모학대, 우울감, 사회적 위축, 비행피해경험과 사이버비행의 관계성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3, 147-163.
- 김선남(1994).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희, 김경연(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가정과삶의질연구**, 16(4), 155-166.
- 김신정, 김영희(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 김영미(2016).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심리적 적응 및 비행문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470-481.
- 김용석, 박명숙(2000). 청소년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청소년 음주와 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2, 83-106.
- 김용주(201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위축의 관계.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자(2000). 비행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개념, 우울성향과의 관계.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2001).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학대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 이근영(2010).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121-149.
- 김재엽, 정윤경(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5), 169-197.
-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2008).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6, 31-59.
- 김재윤, 한희수, 박은영, 강민주(2020).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업 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의 순차적 매개 효과. **대한가정학회**, 58(4), 601-611.
- 김정남, 남영옥(2013).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초기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4), 85-106.
- 김주연, 도현심, 김민정, 신나나(2012).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외로움: 또래관계의 질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3(1), 111-131.
- 김준성(2019). 청소년 공격성에 관한 메타경로분석.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 이동원(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165.
- 김진(2020). 청소년기 부모학대경험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 하문선(2020). 청소년기 부모학대 경험에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 효과. **중등교육연구**, 68(1), 97-133.
- 김춘경, 조민규(2014). 학대경험 수준에 따른 아동의 정서문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0(4), 267-290.
- 김태량, 최용민(201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18, 71-96.
- 김태명, 이은주(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 (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 김한울(201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이버불링 가해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 김현실(1997). 한국 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개인내적 특성,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8(1), 57-69.
- 김현수, 김현실(2000). 청소년 비행행동 측정도구 개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79-90.
- 김현수, 김현실(2004). 한국 청소년의 공격성 관련변인 및 표출 경로. **신경정신의학**, 43(1), 75-85.
- 김현진, 김민(2016).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공격성과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5), 97-122.
- 김형진(2017). 부모양육태도와 애착관계가 중학생의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가해,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 이지민(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 31(4), 77-88.
- 김혜영(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상인, 권남희(2013). 청소년 사이버 불링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3), 23-43.
- 남은정, 배희분(2019). 청소년의 우울이 온·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353-375.
- 노치영(1992). 가족 폭력의 세대간 전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폭력 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0(4), 219-230.
- 대검찰청(2022). 2021 범죄분석. <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 (접속일자: 2022.03.10.)

- 법원통계월보(2022). <https://www.scourt.go.kr/> (접속일자: 2022.03.10.)
- 문경주, 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1(1), 29-43.
- 문민정(200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수용능력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숙(2018). 부모양육태도가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숙(2021). 초기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비행 간의 관계: 그릿과 학업성취도의 매개효과, **교정복지연구**, (71), 1-29.
- 박성연, 이숙(1990). 논문편: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8(1), 141-156.
- 박성희(1997).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지도방안. **청소년행동연구**, 2, 98-112.
- 박영숙, 임안나(2018).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휴대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57(1), 57-84.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2011). 청소년 사이버 일탈행동에 대한 부모, 친구, 도덕적이탈 및 관계효능감의 영향. **교육심리연구**, 25(3), 617-645.
- 박예슬, 박주희(2016).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7(3), 39-51.
- 박은주, 최말옥(2014).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와 청소년비행경험 및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우울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219-238.
- 박자양(2005). 청소년의 역기능적 심리특성, 인터넷 중독 및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모형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선, 황성현(2010). 청소년 가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출충동 변인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0), 1-21.
- 박정은(2002).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및 또래동조성과 집단 따돌림 가해경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김유경(1997).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2, 113-135.
- 박혜숙, 김양곤(2014). 한국 청소년의 정서, 가정, 또래 및 학교환경 특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119-143.
- 반지윤, 오인수(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을 매개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별 다중집단분석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31(1), 129-156.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 2021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 배병렬(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도서출판청람.
- 배화옥, 이민화(2018). 부모의 학대방임과 청소년의 비행. **사회과학연구**, 34(1), 281-300.
- 서봉언(2017). 청소년 사이버 비행 영향요인 분석: 학교급별 차이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5(1), 77-99.
- 성동규, 김도희, 이윤석, 임성원(2006).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 79-129.
- 소리나(2016).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중학생 자녀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성웅, 권석우, 신민섭, 조수철(2000). 학교폭력 피해자의 정신병 실태 조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124-143.
- 신현경, 이승연(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 분노억제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배척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10), 259-285.
- 심용철(1989).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비행의 측정. **대학생활연구**, 7, 189-209.
- 심용철(1999).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2), 24-34.
- 심진숙(2008).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행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계희(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및 학교폭력 경험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영석, 안세영, 최보영(2016).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해 경험이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코리아 저널**, 24(2), 221-240.
- 염효원(2022). 학업 및 대인관계 긴장이 청소년의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공격성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정신분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와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행동과학연구소**, 11(1), 1-15.
- 오윤선(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분노 및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0(3), 91-104.
- 오인수(2014). 성별에 따른 유형별 공격성과 전통적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 가해의 관계. **상담학연구**, 15(5), 1871-1885.
- 오채미, 공인숙(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25(4), 139-149.
- 옥정, 오윤희, 정현옥(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한국심리학회**

- 지:임상, 20(2), 259-270.
- 원혜옥(2000). 인터넷범죄의 특징과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형사정책연구, 11(2), 93-114.
- 유연주(202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비행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이중매개효과.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재, 심호규(2010). 사회학습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2), 114-139.
- 유진이, 탁분희(2007).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 시설환경**, 5(3), 101-108.
- 윤나리(2015). 반응적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 비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승현(2015). 청소년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화, 김성희(2020).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족스트레스가 자녀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인문사회** 21, 11(4), 1781-1796.
- 이복실(2007). 중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 공격성, 학교폭력경험 및 폭력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13, 25-50.
-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 이용택(20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석영, 이택호, 한윤선(2015). 청소년의 폭력비행 피해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 우울,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0, 27-53.
- 이성식(2007). 청소년 사이버비행의 동기, 기회와 통제요인을 통한 모형의 구성과 검증. **정보화정책**, 14(3), 3-15.
- 이성식(2004).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설명요인에 관한 일 연구. **형사정책연구**, 57, 121-154.
- 이세경, 김영혜(201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이 숨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5), 245-266.
- 이수경, 오인수(2012). 사이버 괴롭힘과 오프라인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3(2), 137-161.
- 이수연(1998). 양육의 개념 분석.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4(1), 76-85.
- 이슬기(2019).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연, 송경희, 정혜원(2018).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경험, 우울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84-284.
- 이승주, 정병수(2015).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17(3), 223-250.
-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81.
- 이아름, 이운주, 양현일(2014). 고학년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언어폭력성이 사이버 불링 피해 및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6), 2437-2450.
- 이완희, 황성현(2014). 청소년의 부정적 자극이 친구차별접촉과 긴장요인을 매개로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6(5), 197-218.
- 이운영, 차재호(1974). 아들과 딸의 남성-여성성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 29-40.
- 이원식(2018).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3), 75-108.
- 이원영(1984).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유아교육연구**, 5, 101-140.
- 이은아(2011). 초등학생용 공격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 이은숙(2002). 고등학생의 소외와 우울, 자살사고, 비행과의 관계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9(1), 56-65.
- 이정숙, 안윤영(2005). 초등학생의 컴퓨터 사용과 사이버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6(1), 225-254.
- 이정옥(2004). 부모의 갈등과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환(2014). 사이버범죄 피해가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일반긴장이론의 검증. **승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 이순래, 정윤미(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V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24.
- 이종희(202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간 관계: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이중 매개효과.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박동필(2015). 부모의 과보호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효과: 특성분노와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Korea Journal**, 23(1), 55-76.
- 이지혜, 강민주(2019).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0(1), 69-83.
- 이진주(2020).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이버비행 가해경험간의 관계. **한남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 곽금주(1994). 자기상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1).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2), 119-135.
- 이현(2017). 부모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도덕적 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2), 51-69.
- 이혜은, 최정아(2008).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개인 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15(1), 197-221.
- 이혜정, 위슬아, 김범준(2015). 공격성과 비행에 관한 연구: 남녀 차이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675-695.
- 이홍, 김은정(2012). 청소년의 공격성 하위 유형에 따른 인지 및 정서 특성. **청소년학연구**, 19(1), 227-250.
- 임계령(2006). 청소년 비행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영(2015). 한부모 가족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 17, 353-376.
- 임숙희, 송영일, 곽대훈(2018). 비행청소년의 심리사회적요인이 사이버일탈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17(4), 243-266.
-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2014).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적응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4), 1-27.
- 장지순(199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격성 유형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7). 청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 88-106.
- 전동일, 위수경, 최종복, 오봉욱(2008). 청소년 사이버 비행 영향 요인. **사회복지리뷰**, 13, 149-170.
- 전숙영, 안윤영, 이정숙(2005).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성장환경이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9(3), 489-505.
- 정두리, 조한익(2021).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3), 809-823.
- 정문자, 김문정(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 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11-27.
- 정민희, 유서구(2018). 공격성이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1, 1-22.
- 정소희(2009). 청소년비행의 발달과정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0(2), 31-64.

- 정완(2005). 정보화시대의 위협자, 사이버폭력: 현황과 대책. **국제평화** 2(2), 143-186.
- 정원식(1975). 가정환경 진단검사. K.T.C.
-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과정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정일영(2019). 부모 학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58, 71-96.
- 정한호(2012).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20, 206-241.
- 제미순, 최원희(2008). 고등학생의 비행경험 관련 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07-819.
- 조강원, 임영식(2020).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의존도의 매개효과와 친구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2(4), 159-181.
- 조봉환, 임경희(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예진, 주해원, 현명호(2015). 부정적 양육과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비행피해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6(2), 59- 81.
- 조유정, 석주영, 박인전(2005).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6(1), 133-163.
- 조유진(2011). 공격성과 또래괴롭힘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아동과 권리**, 15(1), 67-88.
- 조운영(2020). 부모의 방임 및 학대와 학교적응의 중단적 관계 연구: 자아탄력성,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4, 171-197.
- 조정숙, 박경애(2021).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상담심리교육복지**, 8(1), 25-40
- 조현철, 강석후(2007). 구조방정식 모델에서 항목묵음이 인과 모수의 검정과 적합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Global Academy of Marketing**, 17(3), 133-153.
- 좌현숙(201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수준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문화포럼**, 43, 135-161.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2011).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1-148.
- 진혜민, 배성우(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차지량(2007).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불안 및 정서표현성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나리(2022).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 김현수(2018). 초기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사이버불링 경향성의 관계에서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6(3), 321-341.
- 최영신(2000). 비행청소년의 학교 재적응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184.
- 최영호(1997). 정보범죄의 현황과 제도적 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236.
- 최유진(201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문제행동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이시연(2006). 빈곤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비행,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1, 89-113.
- 최은지, 송경희, 이승연(2021).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 또래괴롭힘 피해, 우울 간의 관계: 학급별 차별수준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8(2), 249-267.
- 하문선, 김은선, 한은지, 안수연(202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사이버비행 및 현실비행 간 관계. **중등교육연구**, 69(2), 209-244.
- 하문선, 김지현(2013). 한국 초기 청소년 공격성척도(K-PCS) 타당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1), 71-101.
- 한동헌(2012).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철(2008).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273-298.
- 한승욱(2011). 부모양육과 자기통제력이 청소년폭력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종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련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원무(2013). 매개효과 분석 방법의 최근 트렌드. **기업과혁신연구**, 6(3), 43-59.
- 홍성삼(2020). 청소년비행 요인간 관계분석 및 시사점 연구 -중학교 학생 비행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15(3), 337-365.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지연, 김윤경, 박주희(2021).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사이버비행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의존도를 통한 적극적 신체운동의 조절된 매개효과. **생애학회**

- 지, 11(2), 41-64.
- 홍태경, 류준혁(201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비행요인의 비교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8(3), 113-138.
- 황규숙(1999). 부모양육태도와 중요한 타인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성현, 이강훈(2017).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들의 심리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24(1), 157-175.
- Allen, J. J., & Anderson, C. A. (2017). Aggression and Violence: Definitions and Distinctions. *The Wiley Handbook of Violence and Aggression*, 1 - 14.
- Alsaker, F. D. (1996). Annotation: The impact of puber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7, 249 - 258.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1), 27 - 51.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 Aronson, E. (1980). Human Aggression. In *The Social Animal* (3rd. ed). San Francisco, California: W.H. Freedman.
- Asendorpf, J. B. (1991). Development of inhibited children's coping with unfamiliarity. *Child Development*, 62(6), 1460-1474.
- Baldwin, A. L. (1955). Socialization and the parent- 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19, 127-136.
- Baron, R. A., & Richardson, D. R. (1994). *Human Aggression* (2nd ed.). New York: Plenum.
- Baumrind, D. (1966). Effect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child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 245-249.
- Bayram Özdemir, S., Cheah, C. S., & Coplan, R. J. (2015).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Multiple Forms of Social Withdrawal in Turkey. *Social Development*, 24(1), 142-165.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4), 169-208.
- Berkowitz, L. (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Role of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s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81,

165-176.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McGraw-Hill.
- Buss, A. H. (1961). *The psychology of aggression*. New York: Wiley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Copeland, W. E., Wolke, D., Angold, A., & Costello, E. J. (2013). Adult psychiatric outcomes of bullying and being bullied by pe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AMA Psychiatry, 70*(4), 419-426.
- Coplan, R. J., Rose-Krasnor, L., Weeks, M., Kingsbury, A., Kingsbury, M., & Bullock, A. (2013). Alone is a crowd: Social motivations, social withdrawal, and socioemotional functioning in later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9*(5), 861 - 875
- Coplan, R. J., Rubin, K. H., Fox, N. A., Calkins, S. D., & Stewart, S. L. (1994). Being Alone, Playing Alone, and Acting Alone: Distinguishing among Reticence and Passive and Active Solitude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5*(1), 129 - 137.
- Craig, W. M. (1998). The relationship among bullying, victimization,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1), 123-130.
- Crick, N., Grotpeter, J.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unningham, N. J. (2007). Level of bonding to school and perception of the school environment by bullies, victims, and bully victim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7*(4), 457-478.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
- Skinner, E.,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 Elder Jr, G. H. (1962). Structural variations in the child rearing relationship. *Sociometry, 24*1-262.

- Enez Darcin, A., Kose, S., Noyan, C. O., Nurmedov, S., Yilmaz, O., & Dilbaz, N. (2016). Smartphone addic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social anxiety and loneliness.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35*(7), 520 - 525.
- Feshbach, S. (1964). The function of aggression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ve drive. *Psychological Review*, *71*(4), 257.
- Feshbach, S. (1971). Dynamics and morality of violence and aggression: Some psychological considerations. *American Psychologist*, *26*(3), 281.
- Gonzalez, A. L., & Wolters, C. A. (2006).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ing practices and achievement motivation in mathematics.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21*(2), 203-217.
- Hartup, W. W. (1974). Aggression in childhood: Development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9*(5), 336 - 341.
- Hinduja, S., & Patchin, J. W. (2011). Bullying, Cyberbullying, and Suicid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14*(3), 206 - 221.
- Zurcher, J. D., Holmgren, H. G., Coyne, S. M., Barlett, C. P., & Yang, C. (2018). Parenting and cyberbullying across adolescence.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21*(5), 294-303.
- Katz, I., Lemish, D., Cohen, R., & Arden, A. (2019). When parents are inconsistent: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s' involvement in cyberbullying. *Journal of Adolescence*, *74*, 1 - 12.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ewYork: Guilford Press.
- Kurdek, L. A., & Krile, D. (1982). A development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th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perceived social self-competence. *Child Development*, 1485-1491.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Parent-child interaction. *PH Mussen (Series Ed.) & EM Hetheringto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1-101.
- Martin, B. (1975). Parent-child relation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4*, 463-540.
- Moreno - Ruiz, D., Martínez - Ferrer, B., & García - Bacete, F. (2019). Parenting styles, cyberaggression, and cyber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93*, 252-259.
- Nelson, L. J., Hart, C. H., Wu, B., Yang, C., Roper, S. O., & Jin, S. (2006). Relations between Chinese mothers' parenting practices and social withdrawal in early child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3), 261-271.

- Gómez-Ortiz, O., Romera, E. M., & Ortega-Ruiz, R. (2016). Parenting styles and bullying.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psychological aggression and physical punishment. *Child abuse & Neglect*, 51, 132-143.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6), 644 - 660.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7), 1171-1190.
- Olweus, D. (1973). Personality and aggression.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20, 261-321.
- Padır, M. A., Ayas, T., & Horzum, M. B. (2021). Examining the relationship among Internet parental style, personality, and cyberbullying/victim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in Education and Science (IJTES)*, 5(1), 56-69.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 - 335.
-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3), 382 - 385.
- Roland, E., & Idsøe, T. (2001). Aggression and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7(6), 446-462.
- Rubin, K. H., & Asendorpf, J. (1993).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NJ: Erlbaum
- Rubin, K. H. (1982). Nonsocial play in preschoolers: Necessarily evil?. *Child Development*, 651-657.
- Rubin, K. H., Cheah, C. S., & Fox, N. (2001).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and display of social reticence in preschoole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2(1), 97-115.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1), 141 - 171.
- Rubin, K. H., Bowker, J. C., & Gazelle, H. (201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The development of shyness and social withdrawal*,

131-156.

- Sandhu, G. K., & Sharma, V. (2015).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anxiety in relation to stylistic parenting dimensions in the Indian cultural context. *Research in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s*, 3(3), 51-59.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2), 413.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Sigurdson, J. F., Undheim, A. M., Wallander, J. L., Lydersen, S., & Sund, A. M. (2015). The long-term effects of being bullied or a bully in adolescence o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mental health problems in adulthood.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9(1), 1-13.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58 - 1069.
- Vandenberg, R. J., & Lance, C. E. (2000). A review and synthesis of the measurement invariance literature:er Suggestions, practices, and recommendations for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1), 4-70.
- Walkup, J. T., & Rubin, D. H. (2013). Social withdrawal and violence—Newtown, Connecticut.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68(5), 399-401.
- Watson, J., & Nesdale, D. (2012).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withdrawal, and loneliness in young adult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2(8), 1984-2005.
- Weiner, I. B. (1982).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New York: Wiley.
- Willard, N. E. (2007).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aggression, threats, and distress*. Illinois: Research press.
- Ybarra, M. L., & Mitchell, K. J. (2004). Online aggressor/targets, aggressors, and targets: A comparison of associated youth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7), 1308-1316.

<부록>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설문지 (중등용)

1. 부모 양육태도 척도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2)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3)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4)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 하지않으신다				
5)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6)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7)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8)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 라고 하신다				
9)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10) 부모님은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11) 부모님은 나에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12)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2. 사회적 위축 척도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2) 부끄럼을 많이 탄다				
3)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4) 수줍어한다				
5)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3. 공격성 척도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2)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3)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4)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5)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6)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4. 현실 비행 척도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달에 1번	한달에 2~3번	1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번
1) 담배 피우기						
2) 술 마시기 (제사나 성찬식 등에서 한 모금정도 마시는 경우는 제외)						
3) 무단결석 (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						
4) 가출 (하룻밤 이상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은 경우)						
5)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6)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7) 께싸움						
8)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9) 다른 사람 협박하기						
10)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뺨뜯기)						
11)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12) 성관계						
13) 성폭행이나 성희롱						
14) 돈을 걸고 도박하기						
15) 심한 욕설과 폭언						

5. 사이버 비행 척도

지난 1년 동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인터넷) 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달에 1번	한달에 2~3번	1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번
1) 누군가에게 욕이나 험한 말을 직접 보낸 적이 있다						
2) 누군가에 대한 욕이나 나쁜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적이 있다						
3) 상대방이 싫다는데 계속해서 말, 글, 그림 등을 보내 스토킹 한 적이 있다						
4) 당사자가 원치 않는 사진,엽사, 이미지, 동영상을 보내거나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5) 다른 사람 아이디를 도용해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사이버상에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다						
6) 누군가의 개인정보(이름, 나이, 학교, 전화번호 등)를 인터넷에 올리는 신상털기를 한 적이 있다						
7)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돈을 뺏은 적이 있다						
8) 와이파이 셔틀이나 핫스팟 셔틀(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게 시키는 것)을 시킨 적이 있다						
9)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글이나 말,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낸 적이 있다						
10) 인터넷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퇴장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싫다는데 반복적으로 초대할 적이 있다						
11) 일부러 시비를 걸어 상대방이 먼저 욕하게 하거나 성격에 문제 있어 보이게 유도한 적이 있다						
12)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시키거나 (담배)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						
13)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장글을 올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적이 있다						

14)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를 집중공격을 한 적이 있다						
15) 대화방에 일부러 상대방을 초대하지 않거나 댓글이나 말을 무시한 적이 있다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yles and Juvenile Delinquency : A Comparison of Real-life and Cyber Delinquency

Ban, Han Byeol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s and real-life delinquenc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s and cyber delinquenc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following were researched.

1. Do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s affect adolescent delinquency?
 - 1-1. Do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s affect adolescent delinquency in real life?
 - 1-2. Do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s affect adolescent cyber delinquency?
2. Do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s and delinquency?
 - 2-1. Do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s and real-life delinquency?
 - 2-2. Do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s and cyber delinquency?
 - 2-3. Are there differences by gender in the effect of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s on adolescent delinquency through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This study used the 3rd year data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The responses of 2,384 participants were used e

xcluding non-responses, All the data was analyzed with the SPSS 18.0 and AMOS 23.0. Firstly,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18.0. Secondly, path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s by using AMOS 23.0. Thirdly, bootstrapping method using phantom variables was implemented to verify the individual and doubl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in the path of negative parenting styles towards real-life delinquency and cyber delinquency. Finally, a multi-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in the research model.

The analysis results are outlined below.

First,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s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al-life delinquency of adolescent children. On the other hand,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yber delinquency.

Second, social withdrawal shows a significant individu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s and real-life delinquency. Also aggression shows a significant individu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s and real-life delinquency. In the same way, social withdrawal shows a significant individu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s and cyber delinquency. Also aggression shows a significant individu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s and cyber delinquency. Furthermore,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s and real-life delinquency. Similarly,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s and cyber delinquency.

Third, the path to the structural model of aggression for real-life delinquency differed by gender. the examination by gender demonstrated that boy's real-life delinquency is more affected by their aggression than girl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larified that parents' negative parenting styles affects not only real-life delinquency but also cyber delinquency through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s that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parents and adolescent children are necessary to prevent and cope with juvenile delinquency.